

# 御眞 圖寫過程에 對한 小考

—李朝 肅宗朝를 中心으로—

李 康 七

- |                |           |             |
|----------------|-----------|-------------|
| 1. 序 言         | 4. 正本設彩   | 9. 洗草 埋安    |
| 2. 御容圖寫都監의 設置  | 5. 奉安과 瞻拜 | 10. 論賞      |
| 3. 畫員選拔 및 草本過程 | 6. 標題     | 11. 現存하는 御眞 |
| 가. 畫員選拔        | 7. 粧      | 12. 結言      |
| 나. 草本過程        | 8. 擇日     |             |

## 1. 序 言

肖像畫는 우리나라 繪畫史에 있어 獨特한 位置에 있음은 遺物이나 史書를 通하여 보더라도 知悉의 事實이다.

이는 이미 率居가 夢中에 檀君을 보고 그眞을 그려서 奉安케 하였다는 說話가 傳하고, 古代 中國에서는 商(殷)의 高宗(武丁)은 肖像畫로 大臣을 選擇했다 한다.<sup>(1)</sup> 이와같이 悠遠한 歷史를 지닌 肖像은 위로 丕와 后로부터 文人, 學者, 一般百姓에게까지<sup>(2)</sup> 미치게 하였음은 肖像畫에 共通된 特色이 있는 것으로 이는 藝術的인 效果를 높임과 아울러 容貌에는 그 人物의 內面도 表現한다는 要素를 갖추워야 하였던 것이다. 더욱기 帝王의 肖像 卽 御眞은 그의 傳神을 萬代에 繼承시키고자하는 信念下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三國時代以前은 史書의 未備로 詳考할수는 없으나 이미 新羅 神文王 二年 六月에 彩典이 設置되었고<sup>(3)</sup>, 高麗朝에는 王建太祖以後 歷代 王으로부터 一般人에게까지 盛行되었음을 볼수 있는 것이다. 歷代王의 御眞은 대개의 경우 生時에 圖寫하였다가 王이 昇遐한 年후에 影殿에 奉安하였는데 이 影殿은 대개 寺刹에 位置하였고, 功臣堂의 경우도 역시 이같이 하였던 것으로 卽 太祖二十三年(940)에 新興寺를 重修하고 功臣堂을 設置하였는데 三韓의 功臣들을 東西壁에 그려

1. 故宮國像選萃 中國故宮博物院編 (1971年別)序言條에 於傳說中有殷代高宗繪圖像而得良輔之故事
2. 譯註高麗史卷三 世家3 成宗 9年(庚寅)條 有全州求禮縣民孫順興其母病死畫像奉祀三日一詣墳墓甕之如生
3. 三國史記 神文王 二年 六月條에 置彩典監一人

두고 一晝夜를 無遮大會를 設하였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는것을 常例로 삼았으며<sup>(4)</sup> 한편 王后의 肖像은 王과 더불어 奉安하였음을 볼수있고, 特히 恭愍王은 그의 妃가 同王 16년에 죽자 그의 妃의 影殿을 建立하는데 그 役事로 因한 百姓의 被害는 實로 多大하였던 바, 이를 大略 간추려 보면 첫째 六道의 丁夫를 徵發하여 役事를 施行하였고<sup>(5)</sup>, 둘째 서울 坊里의 丁壯및 四十二都府를 모두 徵發하여 馬岩의 溝渠를 浚고<sup>(6)</sup>, 셋째 影殿의 鷲頭가 이룩되니 그 裝飾에 黃金 六百五十兩, 白銀 八百兩이 들었다 한다.<sup>(7)</sup> 이와같이 恭愍王은 그 妃의 影殿을 構築하기 爲한 役事로 人力과 國費를 蕩盡하였음을 볼수 있는 것이다.

한편 李朝에 이르러서도 麗代에 이어 歷代 王의 肖像이 圖寫되었으나 現存하는 遺物은 2·3點에 不過한 實情이다. 이는 頻繁히 이러한 戰禍의 災도 있으려니와 麗代에는 倭寇가 侵入하여 取하여 갔으며<sup>(8)</sup> 더욱 致命的이었던 것은 壬辰倭亂(1592)과 丙子胡亂(1636)의 大戰亂도 있었지만 1950년에 發生한 6.25사변으로 因하여 一部 간직하였던 御眞마저 燒失되고 全州 慶基殿에 保存한 李太祖의 御眞이 있을뿐 그 外는 타다남은 英祖및 哲宗의 御眞이 있을 뿐이다.

도리켜 보건대 이러한 難關속에서 이루어졌던 肖像藝術은 新羅時代의 典彩署 高麗에서 近世朝鮮 前期까지의 圖畫院과 後期の 圖畫署는 獨立된 機構에서 特別한 任務를 遂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肅宗39年 承政院日記에 依하면 王의 肖像을 圖寫함에 미처서는 圖畫署의 畫員으로서만이 그 任務를 充當하는것이 아니라 全國의 善畫者를 널리 求하여 그 責務를 담당하게 하였고, 또한 圖寫한 御眞이 年輪을 거둬하여 焦褪하고 塵垢하면 역시 위와같은 方法으로 模寫하여 길이 保存하게 하였던 것이다.<sup>(9)</sup> 그러나 現今과 같이 形狀 그대로를 寫眞化하기란 不可하였고, 이는 오로지 才質이 豊富한 畫工의 手に 依해서 圖寫하는 道理밖에 없었던 것인바 그나마도 이는 七分貌以上이면 거의 같은 形狀이

4. 譯註高麗史卷 二世家卷 二太祖23年 條

是歲重修新興寺置功臣堂畫三韓功臣於東西壁設無遮大會一晝夜歲以爲常 矣다.

無遮大會라: 賢聖, 道俗, 貴賤 上下를 莫論하고 막고 가림이 없이 平等하게 財貨와 佛法의 布施를 行하는 大會

5. 前揭高麗史卷四十一 世家卷四十一 恭愍王十六年 丁未 四月 丙寅條

命放影殿役夫止留工匠及僧徒時徵發六道丁夫督役太急逃者相繼以久早放之乃雨

6. 前揭 恭愍王十七年 戊申 六月 辛丑條

盡發坊里丁及四十二都府鑿溝于馬岩

7. 前揭卷四十三 世家卷四十三 恭 王二十一年 八月 甲午條

影殿鷲頭成其飾黃金六百五十兩白銀八百兩

8. 前揭 卷三十九 世家三十九 恭愍王六年 丁酉 九月 戊戌條

倭入昇天府與天寺取忠宣王及韓國公主眞而去

前揭 卷四十一 世家卷四十一 恭愍王十四年 乙巳條

倭入昌陵取世祖眞以歸

增東國輿地勝覽(全) 豊德郡條에 昇天府가 明示되었으니 그 建置沿革에 依하면

本高句麗貞州高麗顯宗九年屬開城縣爲尙書都省所掌文宗十七年直隸開城府睿宗三年改爲昇天府置知府事忠宣王二年降知海豊郡事本朝

前揭 陵寢條에 依하면 昌陵은 「高麗世祖陵 號昌陵在禮成江上永安城」이라 있다.

9. 肅宗三十九年 癸巳 四月 八日以後 御眞圖寫過程에 對한 記錄은 承政院日記 記錄을 本稿 後尾에 轉載한 關係로 註를 附記하지 않음을 밝힌다.

다. 또는 一毫不以 便亦他人 즉 한끝만 같지 않아도 곧 他人이 된다는 굳은 信念下에 온 精誠을 다하여 精進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過程에서 圖寫된 王의 肖像 稱號도 처음에는 影子, 影幀, 影像, 眞像 등으로 呼稱하였으나 肅宗 39年때에 王의 肖像을 圖寫하기 爲하여 御容圖寫都監이 設置된 後 그 名稱이 御眞으로 決定되어 불리우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先人들의 肖像畫는 歷史的으로나 그 技法에 있어 精細하고도 巧妙하였고, 그 精誠은 傳存되는 遺物을 通하여 知悉하는 事實이다.

本稿에서는 이에 對한 許多한 資料가 있을 것이나 于先 承政院日記에 나타난 朝鮮王朝 第19代王인 肅宗御眞圖寫過程(同王39年 4月)에 記錄된 內容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 2. 御容圖寫都監의 設置

承政院日記에 依하면 그 呼稱도 御容을 直接 瞻望하면서 그리는 것을 圖寫라 하고, 御眞을 보고 그대로 移模하는 것을 模寫라 稱하는 바, 故로 御容圖寫都監과 御容模寫都監의 2個의 機構로 分離되는 것이다. 이 都監의 人員은 暫定的으로 編成되는데 現職 判書級 以下로서 兼職하게 되고(都提調는 例外), 判書가 有故時는 參判이 그 職務를 代行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本事業을 圓滑히 推進하기 爲하여 各曹에서는 積極 參與하게 되었는데 이에 그 人員 構成을 살펴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都提調	一名	都廳	二名	記注官	一名
提調	三名	郎廳	二名	記事官	一名
行左承旨	一名	假注書	一名	畫員	若干名

## 3. 畫員選拔 및 草本過程

### 가. 畫員選拔

畫員選拔은 이미 序言에서 若干 밝힌 바와 같이 圖畫署 畫工 以外에 全國의 善畫者를 널리 求하여 그 中에서 御眞을 圖寫할 수 있는 畫員을 選定하게 되는데 이는 一段 試才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즉 많은 畫員이 一時에 御前に 들어가서 草本을 圖寫할수 없는 關係로 試才에서 合格하여 善畫者로 認定을 받은 者가 選出되어 그 任務를 遂行하게 되었고 비단 選拔되어 圖寫作業이 進行 中이라 하더라도 더욱 優秀한 畫員이 나타나면 그 畫員도 上來하게하여 上記와 같은 節次를 거친 後에 選出하였던 것이다. 더욱기 後에 選拔된 畫員이 試才한 結果 먼저 選拔된 畫員이 出草한 것과 比較하여 甚한 優劣이 없으면 그 사람도 아울러 選拔하고 또한 그러한 過程에서도 草本의 意味를 얻지 못한다면 方外의 士人가운데서 窮搜하여 必成을 기하기에 努力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畫員의 選拔을 嚴格히 하는 것은 御眞을 圖寫하는 過程에 있어 未盡한 點이 없게 함이며 萬代에 傳神하고자하는 뜻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草本過程이 끝나고 正本에 들어가

施彩하는 作業에는 主管畫員을 助役하는 畫員을 두기도 하였던 것이다.

#### 나. 草本過程

草本을 圖寫하기에 앞서 于先 圖繪所가 宮內에 마련되고 圖寫時에 必要한 椅子와 바닥에 까는 자리 즉 龍紋席等에 이르기까지 모두 提調가 王에게 일일이 稟申하여 決定을보며, 이 草本은 一段 紙面에 御容을 墨畫로서 圖寫하는 過程인데 이는 全身을 (他朝는 半身도 있음) 王의 服飾 着用 區分에 依하여 2個本(當時의 경우)으로 出草하였는 바, 그 一本은 遠遊冠 차림이고 또 一本은 翼善冠으로 圖寫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2個의 畫本을 圖寫함에는 王과 提調 또는 畫員과의 一致한 精進力이 合하여야만 이루어지게 되었던 바 이는 王과 提調의 뜻이 畫員의 손에 달려있고 畫員이 圖寫함에 있어 秩毫라도 放心한다면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御眞 圖寫가 始作되는 草本부터 正本設彩過程이 完了될때까지 畫員은 提調에게 알리고 提調는 王께 稟申하여 王의 承認下에 瞻望하고, 그 後에 그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다로운 節次로 進行되는 草本過程은 경우에 따라서는 3番出草까지 反復하는데 그 細目은 다음과 같다.

가. 姿 勢

다. 자 리

나. 冠服諸具

나. 交 倚

다. 眼 睛

### 4. 正本設彩

墨畫로써 草本이 完了되면 이를 絹에 올린 後의 設彩 過程을 이룸인데 무엇보다도 肖像畫는 草本 圖寫도 重要하지마는 正本設彩過程이 가장 힘들고 細心한 努力이 要求되는 것이다. 草本은 墨畫이기 때문에 顔面의 肉色이라든가 衣服의 紋樣等이 細密하게 表現되지않고 더구나 가장 重要視하는 顔面의 眼睛같은 部分은 實로 全畫面의 優劣을 左右할만한 位置에 있는 故로 本 設彩야말로 心血을 기울여야 될 過程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作業이 始作되면서 畫員으로 하여금 畫法을 參考하게 하기 爲하여 他人의 作品을 보여주기도 하는가 하면 正本設彩 作業이 始作되기 前에 畫員으로 하여금 그 동안 心力을 기울여 草本作成을 期하였기 때문에 絹을 짜는 동안 休養을 시키는 境遇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設彩過程에 要求되는 主要事項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가. 廣綃

이 廣綃는 畫布인바 工曹(或은 尙衣院)에서 織造作業을 擔當하였고 作業進度는 一日에 一尺二寸에 불과하였다.

#### 나. 顔 部

容顔을 圖寫함에 있어 時期的으로 그 色이 變하는것과 眼睛에 對한 色의 強弱等を 爲始하여 수염에 이르기까지 特別한 관심을 두고 圖寫하게 하였다.

#### 다. 冠 袍

御眞 圖寫設彩에 있어 顔部도 重要한 位置에 있으나 冠袍 역시 輕視하지 못할 部分이다. 特히 各種 文彩를 爲始하여 制度가 直接 表現되는 것이기 때문에 前記한 바와 같이 古制와 當時의 規制를

充分히 參考하여 是正하면서 進行하였다.

## 5. 奉審과 瞻拜

### 가. 奉審

奉審이라함은 草本및 正本設彩 過程을 通하여 評價하는 일인 바 이는 各 科程마다 未盡한 處를 指摘하여 올바로 圖寫케 함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이 奉審에는 諸 大臣및 王子 宗親들까지도 會審에 參加하여 그에 對한 意見을 君臣間에 交換하는 것이며, 이 奉審에 參席하는 範圍는 때에 따라 官 等の 差는 있으나 大概의 境遇 二品以上の 文武官과 宗臣들이 參席하였는데 이때에는 王이 親臨하여 奉審에 應하게 되는것이다.

### 나. 瞻拜

이 瞻拜는 正本設彩의 圖寫하는 工役을 畢한 다음에 群臣이 모두 御眞에 瞻拜禮를 舉行하는 行事를 말함이다.

## 6. 標題

御眞의 標題는 正本圖寫過程이 畢役한 후에 書寫하게 되는데 이는 直接 絹上에 쓰기도 하고 別途로 써서 붙이기도 한다. 그 位置는 向하여 右邊 上旁에 쓰고 書式은 王의 徽號로 某王 御眞이라고 하며 그 밑에 年月은 雙行으로 記錄하였다. 年號는 崇復紀元後로 記錄하게 하였으며 書寫를 直接 擔當하는 問題는 御筆로 쓰는 境遇와 朝臣가운데 글 잘쓰는 사람을 選拔하여 記錄 하는 方法 등이 있는것이다.

## 7. 粧

正本設彩와 標題書寫過程이 끝나면 이를 簍子로 粧幀하게되는데 이는 後褱를 始作하면서 간간히 물로 씻어 糊氣를 除去하고 掩置하는 期間을 많이 겪어야 固好하게 된다. 이 過程은 後褱로부터 貼子가 完子되면 流蘇를 裝飾하므로써 모든 作業이 終結되며 期日은 約10餘日이 所要된다.

## 8. 擇日

圖寫 事業이 始作되면서부터 影殿에 奉安할때까지 모든 節次는 반듯이 日官에 依하여 吉日을 選擇한 後 實行하였는바 即 草本過程을 爲始하여 正本設彩, 奉審, 粧幀, 瞻拜禮, 大內移安等은 勿論 大小事를 한결같이 擇日에 依하여 行하였으며 또한 草本이나 模寫 後 舊本을 洗草 埋安하는 節次까지도 이와같이 施行하였던 것이다.

## 9. 洗草 埋安

御眞이나 御容을 模寫, 圖寫한 舊本이나 草本을 없애는 일을 말함인데 本朝에서는 草本은 마땅히

洗草 하여야하나 草本이 出草할때 잘 되어 諸臣이 奉審할때 모두 克肖라 하여 洗草하기가 未安하니 小簇으로 粧成하여 櫃子에 奉藏한 後 大內에 保管하였다가 太白山, 五臺山 가운데 深僻處에 璿錄을 奉安하는 行物을 기다려 같이 閣上에 奉安하여 길이 奉藏함이 마땅 하다는 意見이 있어 當時 草本은 洗草하지 않은 일도 있는바 草本이라 하더라도 前記한바와 같이 극히 잘 그려진 때에는 設彩는 비록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正本과같이 簇子를 만들어 保管하게 하였던것이다. 한편 御眞을 模寫한 後 舊本은 吉日을 擇日하여 埋安하였는데 御容을 圖寫한 後 年輪이 거듭할수록 焦褪와 塵垢되던 模寫한 後에 그 舊本은 必然的으로 摘地를 選定하여 洗草 埋葬하였던 것이다.

## 10. 論 賞

本朝에서는 都監이 暫定的으로 設置된 後 御眞圖寫를 爲하여 始終 本事業에 參與한 都監의 人員과 이를 支援한 織納및 絡纓 織造官吏, 工匠을 두루 施賞하였는 바 賞으로는 提調以上은 馬匹로 그 以下는 加資하였고 主管 畫師는 堂上官으로 特陞하였으며 同參 畫士들은 東班職에 隨從 畫士는 上張弓一張式이 授與되었다. 此外 役員, 工匠, 下人들은 該曹로 하여금 米布로써 差等있게 마련해 주도록 하였던 것이다.

## 11. 現存하는 御眞

御眞으로 現今까지 傳存되는 것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宗廟에 高麗 31代 恭愍王과 그의 妃가 있고, 全州 慶基殿에 李太祖, 昌德宮 仁政殿 東行廊에 英祖, 그리고 同宮에 哲宗 등의 御眞들이 있을 뿐이다.

宗廟에 傳存된 恭愍王과 王后의 御眞이 模寫본인지의 如否는 알길이 없고 傳說로는 李太祖 當時 바람에 날려 들어와 그 後로 傳存된다고 하며, 李太祖 御眞은 高宗 9年(壬申 1972)의 模寫本으로 全身像이며 英祖는 光武 4年(庚子 : 1900)에 模寫한것으로 半身像이다. 特히 英祖는 本 御眞 外에 大君때에 圖寫한 全身像이 同宮에 傳하고 있음은 多幸한 일이고 圖寫本으로 哲宗御眞이 同宮에 遺存되고 있는데 이는 特異하게도 成服차림인 것이다. 이 御眞은 아까웁게도 길이로 中央半身이 燒失되었는데 多幸하게도 顔面은 살아 있으며 冠服은 孔雀의 깃을 뒤로 느린 戰笠과 左右 어깨와 가슴에 龍紋을 繡놓은 補(胸背)를 단 成服(一名 : 동다리 또는 具軍服) 차림이다. 戰笠이나 補 등을 爲始한 重要部分마다 泥金着色이 華麗하여 顔面의 肉色과 眼請의 열끼는 實로 纖細하고도 精密하여 밑에 칸 龍紋席의 構圖 亦是 全體 짜임새에 알맞게 圖寫되었는 바 이 精巧한 技法은 果然 御眞圖寫 目的인 傳神의 要素가 內包된 極致의 藝術品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驚歎하게 하고 있다.

## 結 言

御眞을 圖寫함은 그 容態를 길이 傳神함을 目的으로 하고 國家的인 事業으로 推進하였던 것인 바

最初 都監設置로부터 圖寫業務가 終了되어 論賞 行事が 完了될때까지의 모든 過程은 周到綿密한 計劃과 鄭重한 態度로 參與하였던 것이다. 卽 至極히 비롯하여 것을 爲始한 大小事를 勿論하고 일일이 王께 稟申하여 允許를 받고 未盡한 問題點은 文獻이나 古制를 根據로 釐正하기에 愍力한 點等을 拂수 있고 또한 同 期間中 王의 身上을 念慮하여 여러 모로 補弼에 誠意를 다하는 臣下의 忠誠은 眞實로 至極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圖寫 或은 模寫된 李朝 歷代 御眞은 璿源殿에 奉安되었으나 上記한 바와 같이 戰亂으로 損失을 當해 極少數가 遺存되고 그 外로는 恭愍王의 御眞이 宗廟에, 端宗 肖像이 江原道 寧越 永慕殿에 傳하는것이 있는바 이는 圖寫나 模寫過程에서 거리가 먼 推想畫인 것이다. 그 밖의 文武 臣을 包含한 學者, 僧侶 其他의 肖像은 簇子 或은 畫帖으로 許多히 京鄕 各地에 傳存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는 우리나라 肖像 藝術의 極致를 자랑할 수 있는 資料로서 그 保存 管理의 徹底를 바라며 앞으로 貴重한 史料로서 後世에 傳存시키시기 위하여 承政院日記에서 關係原文을 抄錄하여 둔다.

## 御眞 圖寫에 關한 承政院日記抄

(國史編纂委員會影印本에 依함)

(肅宗 39年 4月 8日부터 同年 5月 22日까지)

○都監啓曰, 今日永禧殿第二室影幀, 移安於御齊室大廳, 卯時爲始, 修補之意敢啓, 傳曰, 知道, 影幀修補都監謹錄 (肅宗 39年 4月 8日 Vol. 25, p.849 上段 左)

○俞命雄啓曰, 今日伏見備忘記, 則影子草本已成, 今日出示朝臣爲教, 似是欲聞諸臣所見而然也, 何品以上, 使之進來乎, 上曰此所以令政院稟定也, 大臣之所見何如, 李頤命曰, 群臣雖嘗入侍, 不敢頻頻仰瞻, 今雖奉審影子草本, 必不能詳識好否, 而且使舉朝彙集, 則紛擾中恐不能精審, 二品以上三司人員, 並使之來審乎, 三司則員數多, 只今出入玉堂人來審乎, 上曰, 依爲之, 頤命曰, 親臨後, 會集朝臣, 使之觀瞻乎, 上曰, 非欲親臨, 只使諸臣來審耳, 命雄曰, 此不心牌招, 當以此意知委, 使之來會後告達乎, 且處所定於何所乎, 上曰, 備忘中舉行云者, 蓋以此也, 處所宜定於景賢堂矣, 頤命曰, 臣惶恐敢達不知今番影子草本寫出後, 比前本何如, 上曰, 予不能自見予面, 雖未知果爲肖似, 而照鏡看過, 則今此改寫者似優矣, 今番亦作二本, 後本優矣, 數日前, 已出示醫官輩, 而必經群臣會審後, 欲定之耳, 頤命曰, 此不必擇日而爲, 今日日晚, 待明日知委, 何如, 上曰, 畫刻尙永, 何必明日, 頤命曰, 今此影子之畫, 既緣朝臣所缺不可更爲入內成正本, 別堂中, 自上便於出臨, 外人出缺所作處所, 模成正本, 而今則事體重大, 宜設都監, 差出堂上爲之, 政敢達, 上曰, 依爲之, 命雄曰, 都監設行事, 當出舉條矣, 頤命曰, 正本模寫時, 時或臨幸, 可無失眞之端矣, 上曰, 時時出臨, 可以分明模得, 故予意亦如此矣, 頤命曰, 奉審時諸臣所見, 上所不知, 當令以文字陳啓, 其中有意見精審者, 別爲措辭, 其他或稱好稱否者, 不必每人各書, 聚其同者而書啓, 似好矣, 進條人, 令政院抄出啓下, 宜矣, 上曰, 依爲之, 頤命曰, 上教以爲, 影子有二草本, 初本以未盡之故, 改成一本乎, 上曰, 初本果未

盡，故今又改畫，而初本亦在內矣。（肅宗 39年 4月 9日 Vol.25, p.851 上段 右→左）

○李頤命爲御容模寫都監都提調，金字枕趙泰考金鎮圭爲御容模寫都監，（肅宗 39年 4月 10日 Vol. 25, p.851 下段左）

○今日景賢堂殿坐時，前縣監鄭維升，御容圖寫都監監造官差下，而時無職名，令該曹爲先口傳付軍職，分付東銓，實職除授事下教，（肅宗 39年 癸巳 11月 Vol. 25, p.853 下段 右）

○入侍時，昭顯廟修改吉日已迫，而禮曹判書金有實病，參判閔鎮厚，御容圖寫都監堂上啓下，（肅宗 39年 4月 11日 Vol. 25, p. 853 下段 右）

○末時，上御景賢堂，御容模寫都監都提調以下引見時，都提調李頤命，提調趙泰考，金鎮圭，閔鎮遠，行左承旨金德基，都廳李晚堅，沈宅賢，郎廳申伯周，趙斗彬，假注書金翰運，記注官申壽華，記事官朴師益入侍，都提調李頤命進伏曰，日氣漸熱，夜來寢睡何如，上曰，安穩矣，頤命曰，膈氣及水刺之進，以漸向差勝爲教，今日則比再昨與昨日何如，上曰，今日尤覺差勝矣，頤命曰，麻痺之症，比當初所減幾許乎，上曰，比當初幾減三分之二矣，頤命曰，當早爲入侍，而都監堂上，有未及肅謝者，故待其肅謝而後，仍爲會同坐超，磨鍊若干節日後，來詣閣門外，以致差脫，極爲惶恐，即今日色已晚，頃日草本，出示何如，上曰，出示可也，頤命所啓，御容圖寫，事體至重，泰再奚，畫格雖精，不可專委於一人之手，其他有名稱之人，都監堂上，亦有學缺方外，凡有表表名稱者，並爲招聚，各令出草缺得宜矣，而第數多畫士一時入侍，亦涉煩猥，自都監爲先試才，擇其最優者，入侍出草，何如，上曰，其人爲誰，提調金鎮圭曰，此事重大，不可專責一人，故臣在外時訪問，則圖畫署畫員朴東輔，其中取優云矣，上曰，此人年老眼昏乎，鎮圭曰，臣曾見其畫，則頗有意思，年不至甚老，而猶可圖畫，但耳聾難與通語矣，上曰，耳聾何傷，鎮圭曰，方外李王治者，畫格頗精，曾畫士夫之像而頗善，平壤人金振汝，學畫於曹世傑，亦頗精熟，聞禮曹參判閔鎮遠之言，則天將李如栢畫像，此人摸出，而彼中人，頗稱善云矣，提調閔鎮遠曰，前五衛將李東培，即李如梅之後孫也，前者小臣赴京時，渠欲隨往，尋見其族，故依願帶去矣，李氏諸族，來見而言，爾國有李如栢畫像，請摸送云，故小臣還來時，使金振汝摸出，而關西守令，給價矣，今番判府事金昌集，入去時付送，則李如栢之旁孫，見而稱歎，極以爲幸云矣，鎮圭曰，京中人金翊周善畫，而方流寓光州，此人曾前亦畫士夫像云矣，並爲行會本道，使之給馬上送，何如，頤命曰，宜使平安，全羅西道，給馬上送矣，上曰，依爲之，鎮圭曰，都提調，頃以禁衛營教鍊官張泰興事，有所陳達矣，更無尋問之命，此人則仍而置之乎，亦爲一體試才乎，上曰，予未見其人矣，未知何如，頤命曰，似不及於泰再奚，而見其所畫趙泰采畫像，則頗有意味，故敢爲仰達矣，上曰，一體試才，可也，出舉條又所啓，前縣監鄭維升，即故臺諫鄭維漸之弟也，此人世代，以畫見稱矣，取考戊辰謄錄，則其時，以前縣監趙之耘，監造官啓下，同爲入參矣，今番節目中，監造官一人，亦當啓下，依戊辰例，以鄭維升啓下，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頤命曰，都監處所不合，內司僕軒字敞豁，且與寶廳相通，臣等則在於寶廳，郎廳則在內司僕，相與看檢，事勢便好，節目未及啓下，而以此定其處所，何如，上曰，無妨矣，頤命曰，郎廳先爲出去，定其處所，何如，上曰，依爲之，又所啓，御容改畫後，一本當奉安于江華長寧殿，則今番不可只令中使，水路奉往，輦輿儀仗，當爲造備，此事缺故敢此仰達，上曰，依所達爲之，頤命曰，缺自內造置者，今若並其內外，裏袱出示都監，則當依樣新造，幀子之廣，新舊宜無異，橫長當同矣，上曰，依爲之，出舉條頤命曰，日已晚矣，若至昏暮，則有難圖寫，畫本並爲奉出，畫士亦令招入何如，上曰，依之曰，頤命曰，畫士及看檢之人，俯伏若如常時，則難以瞻望，今番則稍簡其體貌，使之或遠瞻或立瞻，何如，上曰，今番則異於常時矣，依爲之，鎮圭曰，中原則有立侍之觀，至於從容論說之際，則乃爲賜座矣，今亦從其簡便，立侍於瞻望之時，賜座於出之際，以爲從便圖寫之地，何如，上曰，依爲之，鎮圭曰，本曹長官，適有病故，以次官啓下，故小臣不得已入來，而御容寫真，事體重大，次官代行，殊涉苟簡，於臣身可謂榮矣，而其在事體，未知如何，上曰，此非辭免之，事也，在前都監提調，以次官代行亦多矣，仍爲察任，可也，行左承旨金德基曰，閔鎮遠以爲，昭顯墓修改日子不遠，明日當肅拜出去，而渠則既已啓下，都監提調判書金字枕，方有實病云，衆議申鐸，即爲牌招搖肅拜，使之趙明日出仕，何如，上曰，依爲之，出場前定奪德基，願謂假注書金翰運曰，禮曹參議申鐸牌招事，出去分付，可也，翰運，遂出去，分付後，還爲入侍，畫士泰再奚入曰侍，頤命曰，凡畫法，顏貌則不難摸寫，而眼采最難矣，雖以閭閻之人言之，網巾脫着之間，眼采之大小隨異矣，上曰，予不能牽着網巾，而着網之時，則眼稍稍細矣，頤命曰，以舊本見之，則眼睛似大，未知脫網巾而畫之乎，上曰，當初脫網巾，而使之畫出，故眼睛似與常時所見，稍大矣，頤命曰，然則今番亦脫網巾而畫之乎，未知何以爲之乎，上曰，眼采雖少異，而着網後畫之可乎，鎮圭曰，雖以下人言之，網巾脫着之際，眼之大小隨異，勢所固然，而第念平日群臣瞻望，常在於着網巾之時矣，以此樣圖寫，似爲合宜，鎮遠曰，臣僚之瞻



望，常在於着網巾之時，則以此圖寫宜矣，鎮圭曰，大抵畫法，形貌大小廣狹，或難變改，至於毛髮，則增減何難，且凡帝王，正南面而臨朝，則畫像亦以正面，可矣，上曰，凡畫像，正面尤難，常時雖南面臨朝，而至於畫像，則雖非正面，何妨，願命曰，累度出草，俱未極臻，今番如得髣髴寫真，則其幸如何，缺寫真，則當並畫二本，一則置于大內，一則送于缺鋪席，奉置于上綃本于席上，鎮圭曰，雖極惶恐，而稍為前進奉審，何如，上曰，依為之，鎮圭指舊本而顧謂願命曰，此本與中本無異乎，上曰，眠色則異，而其餘則同矣，鎮圭曰，此本何年所畫乎，上曰，乙亥年畫之矣，鎮圭曰，誰人所畫耶，上曰，曹世傑之畫也，鎮圭曰，殊甚惶恐，而此本則更無參看之事矣，願命曰，似無參看之事矣，上曰，然矣，秦再奚，遂展紙入畫，願命曰，織綃最難，自明日使之織出乎，上曰，方自內織之矣，何用二件乎，願命曰，都監稱號，自吏曹以御容摸寫為定，而摸字之義，異於圖字，今則改以圖字何如，上曰，以戊辰年太祖大王御容，以舊本摸寫，故稱以摸寫，而今則與其時有異，改以圖字，可也，德基顧謂翰運曰，出去，招吏曹書吏，摸寫都監之摸字，改以圖字，單子中改付標以入之意，分付可也，翰運，遂出去分付後，還為入侍，上曰，網巾邊子傍，瘡痕近來適然，而非本有子也，願命曰，曾前耳後有浮處，近來亦有之乎，上曰，近來則無矣，提調趙泰耆曰，今日日氣雖熱，而異於盛夏，扇風亦致感傷，姑停揮扇何如，上曰，依為之，願命曰，扇風亦有感寒之事，泰耆曰，扇風入於汗孔，則或有致傷之人矣，願命曰，今日畫水刺，已為進御字，上曰，唯，願命曰，頭髮則無白毛乎，上曰，唯，願命曰，玉色，午前白而午後則紅矣，上曰，常時則不紅矣，願命曰，近來天顏，衰謝之後尤白矣，上曰，唯，願命曰，戊辰年太祖大王御容摸寫時，亦使他畫員，同事助役矣，使兩人並為入侍，雖似未安，而均彩之際，專委一人，事勢苟簡，一人亦為入侍，使之助役，何如，上曰，依為之，願命曰，久御椅子，玉體不安，且即今，體面簡便，然後瞻望之道亦勝，降御平床，何如，上曰，唯，遂降御平床，鎮圭曰，閱鎮遠赴燕時，使彼國畫員，畫其像云矣，凡畫法，見他人所畫，則或有覺悟處矣，上曰，然矣，上曰，凡畫本，遠見與近見各異矣，願命曰，自上把鏡照面，而後覽此所畫，有所下教，則或有差勝之道矣，上無發落，鎮遠曰，判府事金昌集，今番赴燕時，欲畫其像，則通官，購得別畫士，使之缺則千萬不似矣，其畫士，曾畫皇帝像云矣，缺鄭維升，時無職名，令該曹為先口傳付軍職，冠帶常仕，分付東銓，實職除授，何如上曰，依為之，出榻前下教德基顧謂翰運曰，都監節目斯速入啓之意，出去分付，可也，翰運，又出去分付而後，還為入侍，鎮圭曰，乙亥年御容圖高時，幾度圖寫而後，乃為完畢乎，上曰，累次而後成矣，願命曰，日勢已暮，水刺或過時則可適矣，上曰，姑不過時矣，鎮圭曰，聖上必欲終始下覽，則水刺進御于此處，無妨矣，願命曰，臣等親觀水刺之進，則誠為多幸，於此處進御，亦似無妨矣，上曰，依為之，命諸臣少退，俄頃還為入侍，進水刺床，願命曰，水刺之味，比向來稍勝乎，上曰，頗勝矣，願命曰，所進水刺，以米言之，則幾至一升乎，上曰，不至一升矣，撒水刺床，畫士畢畫後，內宦舉畫本以示，上曰，予身故不能詳知，而似勝於前本矣，願命曰，後日入侍時，水刺進御後親臨乎，上綃設彩時，親臨乎，上曰，設彩時，當親臨矣，願命曰，都監官員入來事，自都監啓達乎，自政院啓達乎，上曰，自政院啓達，可也，遂罷出，（肅宗 39年\_4月 11日 Vol. 25, p. 853 下段 右—p. 855 上段 左）

○御容圖寫都監都提調口傳啓曰，昨日以草本上綃後，侍展坐設彩事陳達矣，黑畫則今日上綃，而袞龍袍畫文，然後可以畫髣髴，翼善冠施彩等事，並難速乾，待其盡乾，則幾至申時，申時後展坐，則面部設色，似甚窘迫，暫將更犯明日，今明連為殿坐亦難，今日冠袍畢施彩後，待明日殿坐，為面部設色之地，似為從容得宜，敢啓，傳曰，允。（肅宗 39年 4月 12日 Vol. 25, p. 855 下段 左）

○巳時，上御景賢堂，御容圖寫都監都提調以下引見時，都提調李願命，提調趙泰耆，金鎮圭，閱鎮遠，行左承旨金德基，都廳李晚堅，沈宅賢，監造官鄭維升，假注書金翰運，記注官申壽華，記事官朴師益入侍，都提調李願命進伏曰，日氣陰濕，夜來寢睡安寧乎，上曰，安穩矣，願命曰，今日藥房批答，以諸症漸向差勝為教，比諸再昨引見時加勝乎，上曰，比諸再昨，不知顯有加勝，而大槩漸向差愈矣，願命曰，水刺之進漸勝，則他症亦勝，而越不復常，是用憂慮，即今膈氣之發作，不復頻數乎，上曰，不至頻數，而猶不快止矣，願命曰，今日殿坐，似當竟咎，食物頻進御，何如，上曰，依為之，願命曰，所進湯藥，當盡於明日或再明，請診後當繼進矣，上曰，厥藥已服十五貼，今姑停止，觀勢更進，宣矣，提調趙泰耆曰，藥雖停止，入診則不可不為矣，願命曰，明日此處殿坐時，使醫官入診，亦無妨矣，上曰，缺觀勢為之，可也，願命曰，昨日內織廣綃，工曹判書缺稀濶處，輕薄可欠云矣，自上以改織為教，故方欲改織而倉卒不易，一日所織，不過一尺二寸，當費累日工夫矣，取考戊辰曆錄，則其時自濟用監尙衣院織出，而幘子不以一幅，中用廣幅，左右聯幅以用，未知其時，無廣綃而然乎，或取其輕清而然乎，今番則似不至於聯幅，而聞畫士之言，則北京廣綃，或在於閭閻，且今番使行時，或有出來者，旁求以得則可幸矣，綃必廣且好，然後丹青色，圖寫亦易矣，上曰，不為織用，則尺數雖不及，亦無妨矣，且北京綃，如有可得之路，則得之可也，願命曰，項見內藏幘子，則兩邊

多有餘地，雖或稍狹，猶可用矣，以永禧殿所奉影幀見之，則所畫不同，或以御榻，或以交椅矣，上曰，太祖大王影幀，則畫以御榻，世祖大王影幀，則畫以交椅，今番亦以交椅畫之，好矣，願命曰，永禧殿影子兩本，鋪席五色班斲如中原彩毯，蓋中國無莞席，以氍毹用，而我國則無此俗，以席用之，御座亦然矣，今番所畫影子下鋪席，以即今御座之席畫之乎，依永禧殿影子例，以彩毯畫之乎，上曰，何者為可乎，泰耆曰，唐畫則畫以彩毯，例也，而我國則常時御座，不用彩毯，今此御容影子，依常時御座樣畫之，則似不當以彩毯畫之矣，上曰，然矣，願命曰，小臣所見，以即今御座花紋席花之，則雖使後世見之，可知聖上昭儉之德矣，上曰，依為之，願命曰，綃以一線織之，則脆弱易絕，合線以織，則經緯不均，蓋欲出均正，則反歸疎濶，取其細密，則易至樸厚，然凡寫真傳神，唯以面部為主，而綃若不密，則設色之際，必有意外之傾，臣之賤見，則此事既以傳神為貴，綃之細密者，猶勞於疎濶，只以尺數，分付都監，依樣織出，似乎矣，頃伏見乙亥年所畫影子，則兩邊餘地太多，故幀樣甚大，且永禧殿列聖影子，餘地皆多，故綃欠精密，其在千萬歲傳後之道，幀子之過大，似不便好，莫如取其精細，而減其尺數矣，上曰，永禧殿幀子之廣，其四尺，乙亥年，依此為之，故太廣矣，若得唐綃好矣，而不得而(已)自此織用，則只取其精，可也，願命曰，曾見唐綃，則二尺二三寸，而各別求得，則或有五六尺者矣，上曰，二尺二三寸則似狹矣，泰耆曰，缺以三尺則好矣，上曰，依為之，願命所啓，長寧展缺輦與造備事，日昨已為陳達矣，聞慶基殿御容奉來時輦輿，乃全州所造，而如駕轎狀云，其時陪來書吏一人，尚在故問之，則奉來後改造輦輿，而比常輦，稍廣其制云矣，然今無可考文蹟，未能詳知，而必長南北，然後可容橫子矣，上曰，其時子皆親臨，故知之矣，當初自慶基展奉來，而其時全州判官，乃金世翊也，輦輿自全州急速造出，故如駕轎狀矣，是年秋，以國恤不得奉還，翌年三月過卒哭後，還安于慶基展，而在國恤時，改予不得陪往于津頭，而祇送于闕門外矣，其時輦輿，自京中改造，而其制比常輦頗長，南北則長，而東西則不廣矣，願命曰，今番輦輿，亦當長其南北，以為容橫之地，而當自都督造出乎，自尙衣院造出乎，泰耆曰，取考戊辰謄錄，則自尙衣院造出矣，上曰，分付尙衣院，使之造出，可也，出舉條願命曰，監造官鄭維升，曾前未經入侍，天威咫尺，必多畏懼之心，今番入侍，既簡其體貌，使之放心瞻望，何如，上曰，依為之，願命曰，提調閔鎮遠，為捧陳賀方物，進去禮曹，故姑未入侍矣，上曰，唯命曰，畫士許使，今番金昌集赴燕時隨往矣，金昌集畫像，使北京畫員出草時見之，則中國設彩之法，與我有異云，許淑今亦抬入，與秦再奚講論，何如，上曰，依為之，鎮圭曰，判府事金昌集，自北京回還後，臣病未往見矣，再昨罷歸時歷見，說到御容圖寫事，因出其北京今所畫，燭下不能詳見，然大抵畫法，與我國有異，而設色，或有可以參看處，其草本，使之持來，以示秦再奚，則設彩時，或有覺其未覺處矣，上曰，然矣，持來可也，金德基曰，金鎮圭，忙急入侍，未及朝飯云，趙畫役未始之前，使之出食，何如，上曰，依為之，德基，使鄭維升，御前立，出草本，以示李晚堅曰，玉堂諸臣，累日禁推，今已帶裳放矣，牌抬入直，何如，上曰，依為之，出榻前下教畫士皆入侍，願命，謂鄭維升及諸畫士曰，此草本三件中，何本為勝乎，鄭維升，指上綃本曰，此本頗勝矣，願命曰，此本乃今番所畫也，上曰，日昨所畫也，願命，又謂鄭維升曰，今番缺相議，俾無未盡處可矣，如或眠暗，則照眠鏡而看缺照眠鏡則似勝矣，提調閔鎮遠，入侍，德基，願謂假注書金翰運曰，玉堂牌招事，出去分付，可也，翁運，遂出去分付而後，還為入侍，願命曰，金判府事畫像，郎廳親往持來事，分付何如，上曰，依為之，德基又謂翰運曰，金判府事畫像持來事，出去分付于都監，可也，翰運，出去分付後，還為入侍，願命曰，前頭當更為仰禀，而御容，奉安于長寧殿後，輦輿則仍置其處，何如，上曰，依為之，願命所啓，今此御容正本一件，當具輿衛，奉安于長寧殿，而伊時大臣重臣及中使，亦當陪往本殿，舊件還奉上來，事甚不便，宜自其處，眼同洗草，未知如何，新造輦輿，亦為仍置于本處，上曰，予意亦欲如是矣，依為之，出舉條閔鎮遠所啓，各道方物，因癸酉傳教，以賞給時弓袋筒箇不足之故，所封物種，多以弓袋筒箇代封，自後阿多介，代豹皮，及環刀，長劍等應進物種，元無封進之舉，殊涉未安，臣意則自今誕日，冬至正朝三名日外，別方物，則勿以弓袋筒箇代封，以元定物種封進，為宜，缺十七行願命，謂再奚曰，爾雖改畫，難以加勝乎，再奚曰，如此髣髴圖寫，亦非當初所預料者，國事誠為多幸，豈綠臣之善畫乎，雖使改畫，難保其必勝於此矣，願命曰，諸臣雖共諦瞻，俱昧畫法，使金鎮圭，鄭維升決定，何如，上曰，依為之，鎮圭曰，如許重事，何敢率爾決定乎，第如此髣髴繪成，猶為多幸，此後當使再奚及他畫員，更為出草，而若不及於此本，則仍用此本，宜矣，若使再奚，意思有餘蘊，則當竭盡以畫，而既無餘蘊，則亦奈何，如此之事，連費心力，則意思不出，眼力亦盡，暫賜休暇，則或出新意思矣，維升曰，臣意亦然矣，願命曰，織綃等事，自可費了二三日，其間使之休養心力，且外方畫士，非久當上來，與之相議更畫，似好矣，上曰，依為之，上又曰，平壤畫士，當先來矣，鎮圭曰，金振汝，望後當入來矣，願命曰，金振汝雖上來，安知其必勝於再奚乎，然此事既重且大，待其上來，商議更畫，宜矣，上曰，依為之，願命曰，再奚，趙其休息之日，入來此所，披見草本，磨琢於心，則似有所益矣，鎮圭曰，後稍後，使臣僚更為瞻望，何如，上曰

，依爲之，願命曰，正本成出後，當使大臣瞻望矣，上曰，然矣，德基曰，宋後禱前，使大臣奉審，無妨矣，上無發落，遂罷出，（肅宗 39年 4月 13日 Vol. 25, p. 857 下段 左—p. 859 上段 左）

○御容都寫都監郎廳，以都提調意啓曰，平安道平壤畫師金振汝，罔夜上送，而舉行形止爲先馳報事，撥馬四行缺（肅宗 39年4月 18日 —Vol. 25 p. 862上段 左）

○金相稷，以御容圖寫都監郎廳，以都提調意啓曰，平壤畫師金振汝，今始入來，自明日試才，與張泰與所畫比較，其優者，使之入侍出草，無甚優劣，則二人並爲入侍，使各出草，亦無妨，缺何如，傳曰，允，（肅宗 39年 4月 18日，Vol. 25 p. 862 下段 右）

○御容圖寫都監都提調李願命啓曰，伏見草記批旨，以秦再奚十二日上納草本，定用事命下矣，當初以草本完定後，諸大臣會審，親臨事下教，今此草本，既已完定，以何日會大臣奉審，而效事重大，不但大臣之會審，王世子，亦爲入侍同審，則事，尤完備，故敢此仰達，答曰，依爲之，○今日景賢堂入侍時，御容正本圖寫，以二十六日定行事，及明日朝前，當令二品以上，無論文武宗臣，曾前累經入侍人員，及曾經王堂人員，奉審御容草本，政院趙今日抄啓，待明早知委齊會事，榻前定奪，（肅宗 39年 4月 21日 Vol. 25. p. 872 下段 右—左）

○巳時，上御景賢堂殿坐時，王世子，延祜君延齡君，判中樞府事李會，領議政李濡，判中樞府事徐宗泰，判中樞府事金昌集，左議政李願命，戶曹判書趙泰耆，工曹判書金鎮圭，禮曹參判閔鎮遠，行都承旨俞命雄，行左承旨金德基，右承旨南就明，右副承旨李德英，同副承旨洪丙寧，都廳李晚堅，沈宅賢，弼善李聖肇，司書尹陽來，假注書李廷傑，金翰運，李泰和，記事官徐命均，朴師益入侍，左議政李願命曰，日氣夜朝則陰濕，晝則甚熱，夜來寢睡定寧乎，上曰，安穩矣，願命曰，水刺厭進及麻痺之候，連以一向差勝爲教，未知即今與昨無異乎，或日漸差勝乎，上曰，與昨姑一樣矣，願命曰，御容，以秦再奚再草本定用爲教，故頃日諸大臣奉審後，當商議以定，正本則擇日然後，可以始畫，缺畫像，必畫出全身後，方爲上納，今日日勢已晚，將未及缺全身草本矣，缺也禮曹參判閔鎮遠曰，正本上納吉日，自日官即爲推擇矣，日昨上教，詢以二十四五日亦吉與否，臣意亦以貳六七日爲遠，而日官言，四日則天賊，五日則十惡，此兩日皆不吉，勢將以貳六日定行矣，上曰，貳六日定行，可也，領議政李濡曰，御容圖寫，以速完爲教，臣等不勝欣幸，今日有奉審之命，故茲與諸大臣入侍，而今番則與常時有異，頗瞻玉色，然後可以詳知其逼真與否矣，上曰，然矣，願命曰，大臣久未入侍，使之瞻望玉色，以爲詳細奉審之地，何如，上曰，依爲之，鎮遠曰，初本並爲奉審，然後可知其優劣矣，上曰，然矣，工曹判書金鎮圭曰，依頃日都監諸臣奉審例，體貌比常稍簡，似好矣，願命曰，諸大臣皆眼昏，必近立瞻望，然後可以詳知矣，上曰，然矣，判府事李番曰，遠瞻，勝矣，上曰，凡畫像遠瞻，勝於近瞻矣，番濡，並入奉審，判府事徐宗泰，金昌集，又並入奉審，願命曰，大臣奉審後，下詢其所見，何如，濡宗泰，又入而奉審西邊所奉安草本，上曰，各陳所見，番曰，小臣久在鄉曲，未瞻天顏，已至數年，頃日入侍時，亦殿畏不敢仰瞻，今茲呢侍，始敢瞻望，詢問之下，敢不略陳愚見，仍指上納本曰，此本頗勝矣，又曰，小臣不知畫格，而古人所論，只取其精神之髣髴，必欲酷似，則反爲失真矣，今此納本，雖意外逢着於他處，可知其爲聖顏矣，濡曰，小臣不敢詳知，而頃日奉審草本，則頗爲髣髴，而筆有肥盛之氣，無瘦謝之態矣，今此新本，此初稍瘦，此是最勝處矣，宗泰曰，近來天顏，比前頗瘦，而新本則似是太瘦矣，倏然瞻望，新本似勝，而詳細參看，亦不知其懸勝，但所勝者，眼彩耳，昌集曰，凡畫像高掛，遠看髣髴，有味則謂之善畫矣，頃日奉審初本，意以謂髣髴，今茲新本，比初尤勝，此足爲古人所謂七分貌者矣，願命曰，今日使諸大臣奉審之意，非但爲比較於初本，欲以此本定用，則使之商確論定，何如，上曰，唯，濡曰，臣亦果見閭閻畫像，則絕無髣髴缺髣髴，眼彩頗勝，肥瘦適中，似此缺難保其必勝於此，以此本定缺番曰，使畫工見之，則未知以何本爲勝，而古人所論，真不過於七分，今此納本，盡不下於七分矣，且念畫士及看檢諸臣，殫竭精思，幸得至此，何用更爲出草乎，雖使出草，亦難其必勝於此矣，宗泰曰，入而瞻望，頗似髣髴，欣幸之極，更無所達，然凡畫像之法，最難寫真，雖以閭閻間事言之，付諸畫士之手，不限時日，使之畫意以畫，或幸而得恰似，然後乃止矣，今番圖寫時，不多如秦再奚者，雖未易得，而更爲試才，益求其精，則未知何如，然以臣賤見，不敢詳知矣，昌集曰，雖以閭閻間畫像見之，或有初畫而得味者，或有累畫而不得味者，大抵得其髣髴者亦難矣，小臣今番赴燕時，或謂彼中畫法，勝於我國，故小臣賤像，出兩件草，而終不肖似，故不爲成出，只以草本出來矣，工曹判書金鎮圭，頃到臣家，臣出示，則鎮圭謂，一本設彩頗善，至於上達天聽，遂有入送之命，仍命秦再奚，使之成給，臣誠惶恐，不知所達，今此御容，不至累度經營，遽得意味，雖謂之七分，誠不爲過，至此圖寫，實出意慮之外，今若更畫，則或得加勝，而臣意則此本，足今爲萬世傳矣，願命曰，徐宗泰所達，蓋以事體莫重，故更加精慎之意也，第常人亦多有畫像者，既得髣髴後，欲爲加勝，使畫士摸其本，而暫欲變通，則精力既竭，不但不能變通，漸至差誤者，例也，即今朝士中，金鎮圭所見，

極爲精詳，而不知其變通之道云矣，上曰，一畫進退，優劣懸殊，蓋所爭者毫釐耳，昌集曰，閭閻畫像，使他人見之，則或謂恰似，或謂懸殊，若果如今日御容，則誰敢謂之未盡乎，臣意則似無改畫之事矣，鎮圭曰，臣於當初，以外方畫士，盡爲試才後論定之意仰達，蓋以事體至重，故欲爲累度出草，十分髣髴，而徐宗泰所達，亦與臣意相符矣，張泰與畫格，固知其不及於秦再奚，金振汝，則三度出草，漸勝於初，猶可使之入侍出草，未知何如，上曰，既無甚優劣，予不欲使之入侍出草也，鎮圭曰，金缺意思矣，今番所畫，比前頗減，缺則振汝爲人鈍滯，故私人畫像，磨以歲月，缺今番則似或事出急遽，心有所動，不能盡其才而瞻望，諸大臣，皆以秦再奚再草本，謂得七分，而臣意則似是六分，不敢謂之極盡矣，其在萬世傳神之道，不宜如是而止，更使磨以歲月，從便圖寫，實有得於重事體之道，而亦何敢自下擅斷乎，王世子，亦以所見陳達，則臣下可得以仰聽矣，王世子曰，予不知畫格，諸大臣所達之言，皆好矣，宗泰曰，人皆謂無欠，然後決定爲宜，而優於秦再奚者，既難得之，則使渠更殫心力，務歸極盡，何如，番曰，雖以善書者言之，初頭得意之後，或漸不如初，畫法與書法無異，則既盡心力，而後，雖畫而又畫，何以驗其分限乎，臣不知秦再奚技能之高下，畫法蓋千萬層也，使之改畫，或得加勝，而今此草本，既如是髣髴，雖以此成出正本，似無所欠矣，頤命曰，或謂金翊周，不及於金振汝，而臣亦曾見其所畫，則不知其善矣，昌集曰，瞻望之際，既無大段疵病之處，而凡畫像，設彩取難，既得如是髣髴之後，善爲，設彩則似有加勝之道矣，濡曰，徐宗泰所達之言，蓋缺其極盡無欠之意也，實出於臣子之至誠，而第念瞻望諸臣，皆曰髣髴，以大體言之，則如此髣髴亦難，且畫法，或有得失，雖使更畫，難保其必勝於此，以此本定用，恐或得宜矣，上曰，一畫士所畫，或有得味於此，而不得味於彼者矣，頤命曰，一人畫兩人之像，其或善或不善，例也，而雖使畫一人之像，及其正本畫成時，亦有反不如草本者矣，上曰，然矣，濡曰，南中畫士，何間當上來乎，鎮遠曰，全羅監司報狀，今朝始到，畫士之上來尙遠矣，昌集曰，金翊周雖來，安知其必勝於秦再奚乎，上曰，都提調，曾前使畫其像，而不成云矣，上曰，承旨各陳所見，諸承旨，趨進奉審後，行都承旨俞命雄曰，詳瞻新本，則極爲髣髴矣，右承旨南就明曰，凡畫像傳神，在於眼睛，而今此新本，雖勝於初本，眼彩似不足矣，行左承旨金德基曰，日昨奉審缺既陳所見，而第恐其設色，或變於乾沒矣，今茲缺右副承旨李德英曰，當初奉審缺今茲瞻天親畫，始覺髣髴缺六分，則臣不敢的知，而似此繪成，亦不易得矣，同副承旨洪禹寧曰，頃審草本，猶似未盡，今瞻新本，比初懸勝矣，金翊周，頗善於模寫，而至於畫像，則不可但以畫品論之，必有英邁覺悟處，然後乃能臻妙，而翊周爲人，不甚伶俐，且其久在鄉曲，今雖使之猝然出草，安知其必勝於秦再奚乎，命頤曰，諸大臣，皆以此本爲無欠，判府事徐宗泰之言，亦非以爲未盡，蓋出於冀其加勝之意，而畫士技窮之後，雖使更畫，難保其必勝之，諸臣之意皆然，當依聖教，以此本定用乎，上曰，今番則必欲傳神，故秦再奚，若於初本，不得味，則方外士人中，欲爲窮搜以得，期於必成矣，秦再奚所畫，自初頗得典刑，至於再緝而髣髴，金振汝，張泰與畫格，既無甚優劣，則不必使之入侍出草，而自此專委於秦再奚，可也，頤命曰，金昌集以爲，遠瞻御座及影子，則不相懸絕云，所見如許，極爲多幸，上曰，畫像，何能的似於眞面目乎，只取其味，可也，昌集曰，凡畫像人，與畫各在之時，或似髣髴，而其人在傍則懸殊，今此草本，掛之座隅，無大段錯誤處，可謂善畫矣，上曰，畫像既得精神之後，更欲加勝，則反不如初，一畫進退，所見懸殊，其所爭者，秋毫之間耳，頤命曰，然則當以此本定用乎，上曰，依爲之，頤命曰，頃日二品以上及玉堂諸臣，並爲奉審，而似無的見，今此正本既定之後，不必更爲論列，而第聞詳情，皆欲一番瞻望云，其在慎重之道，允宜洞燭下情，更於無放之曰，抄擇二品以上，及曾經玉當人員，使之奉審，且聞宗班，亦有一番瞻望之願云，亦爲一體抄啓，使得進參於奉審之日，何如，上曰，明日奉審，可也，頤命所啓，事有可以預稟者，諸大臣入侍，亦宜下詢處之，故敢達，正本畢畫之後，一本當奉往于江都，而今番則與前有異，與衛軍陳，不可不備，且大臣及都監堂上，郎廳，兵曹官員承旨史官，並爲陪往，此實大舉措也，以缺奉安時事推之，圖寫粧幘之役，幾至升日，奉往缺此治往之際，田畝易致損傷，缺害農必矣，臣與諸大臣相議，缺姑爲奉安于大內，待秋奉往，則事極便順云，日後以水路奉往，似爲便好，而水路亦不爲無弊，且值風雨，則必有遲滯之患，缸中經宿，亦爲不便，未味何以爲之耶，上曰，諸大臣所見何如，番曰，臣於閣門外，已聞此言矣，江都奉安之舉，既無時月趙期之事，則陸路奉往，舉措重大，正當劇農之節，折旬列邑之民，勢將數日奔走，其爲失時之弊，不可不慮，姑爲奉安於大內，待秋奉往江都，恐合看弊之道，至於水路之議，固似簡便，而詳議以爲，近來水路，與前不同，行缸多有不便處，或值風濕不順，則必有遲滯之患，列邑待候，或友增弊云，其言然矣，臣意，都監工役告完後，稍遲數月，以陸路奉往江都，恐好矣，濡曰，都監事訖之後，奉往江都，若有不容少緩者，則事體既重，不必以有弊爲言，而非有時日之急，且當來月望念間，則日氣漸熱，又是霖雨之節，緋面新彩，恐有濕瀝之慮，今姑奉安于大內，稍待日氣清涼後奉往，似爲得宜，亦合爲民省弊之道矣，今番凡事，自上多從儉約云，農務方殷之時，此亦必有軫念矣，至於水路奉往之議，若乘潮遇順風，則瞬息可到，而如或風濤不順，則必未免阻

滯之患，亦無益於省弊，而反有所害，莫如差待秋間，以陸路奉往之爲便矣，宗泰曰，臣於閣門外，聞左相之言，略言所見矣，小臣之意，與判府事李番之意無異矣，江都奉往，若在來月，則政當極農之節，此甚可慮，曾前有奉安禁中，待秋奉往之事事雖重，聖上每以民事深念，今此姑爲奉安于大內，待秋奉往，以爲便好，水路稍似省弊，而不無可慮，有如諸大臣所達，似不如陸路奉往之爲穩矣，且念奉往之際，沿路侍衛軍兵，亦至數四哨云，雖過農節，而初秋檔事，尤無暇隙威儀雖不可不備，聖上若有特教，使之量此從簡則好矣，上曰，此等事，變通從簡，好矣，昌集曰，缺遲滯之弊，且以威儀言之，缺上曰，缺陸路奉往，可也，出舉條鎮圭曰，前日都提調，以全身出草時，親臨之意仰稟，則以明日親臨下教，而二品以上明日奉審事，亦爲定奪矣，諸臣奉審時，似無親臨之舉，而全身出草時，當爲親臨，則奉審及親臨時刻先後早晚，亦當稟定矣今番奉審時，不必使之更陳所懷，諸臣趙明日早朝，入來奉審，而親臨時，定以食後，何如？上曰，然矣，諸臣奉審時，更無所懷陳達之事，明日食前，使之奉審，可也，願命曰，今番雖不如前，各各獻議，其中有意見者，使之略陳，臣等詳聞其言，入侍時陳達，群意阿如，上曰，依爲之，德基曰，然則文武官二品以上，曾經玉堂人員，及宗臣，並爲抄啓乎，上曰，宗臣，頃日不得奉審，今番則一體抄啓，俾得奉審，可也，出樞前定奪鎮遠曰，金振汝，初既給馬上來，下去時亦當給馬，而金翊周，雖上來，不爲試才乎，上曰，更無試才之事矣，鎮遠曰，然則金翊周，亦一體給馬下送矣，遂罷出，（肅宗 39年 4月 21日 Vol. 25. p. 872 下段 左一p. 875. 上，右）

○辰時，上御景賢堂殿坐，御容圖高都監都提調李願命，提調趙泰考，金鎮圭，閱鎮遠，行左承旨金德基，都廳李晚堅，沈宅賢，監造官鄭維升，假注書金翰運，記事官徐命均，朴師益入侍，都提調李願命進伏曰，日氣漸熱，夜來寢睡若何，上曰，安穩矣，願命曰，水刺厭進及麻痺之症，與昨無異乎，上曰，麻痺之候，與昨無異，而水刺則勝於昨日矣，願命曰，今此正本施彩之役，不可獨委於秦再奚，必有助役者，後可以速完，故頃日入侍畫員二人，使之助役，而皆不慣於施彩，畫士中張得晚，頗精於施彩云，關西畫士金振汝，曾前畫人之像矣，見其所畫洪萬朝像，則不但善爲摸寫，其施彩極精，昨日以還爲下送之意陳達，而今姑仍置，使之助役，張泰興，亦使之同爲施彩，何如，上曰，依爲之，提調趙泰考曰，劑入丸藥，其已缺自今日進御矣，泰考曰，虎蠶丸，例有惡心之症缺進服乎，朝前已爲缺今日諸臣及宗班奉審後，缺欠未久侍之，宗臣及武將，則或依稀未能詳缺體則好云矣，儒川君淵，獨以爲，眼睛太白，暫有肉色則似勝云，此言或有所見，而然畫士入來後，當更爲商議矣，上曰，依爲之，泰考曰，儒川君淵以爲，大體則既已寫真，眼睛少加肉色，尤爲極盡云，畫士入來後，更爲商議則可知矣，願命曰，此外無來盡處云矣，上曰，唯，泰考曰，兵判以爲，下唇黑色，太過云矣，提調金鎮圭曰，草本始畫時，秦再奚以爲，渠之所見，則下唇似有黑點，故少加黑色，而趙泰米所見如此，前頭施彩時，更爲詳細瞻望則可知矣，上曰，然矣，遂招入畫士，展草畫本，願命曰，眼睛及口唇色，問于秦再奚，宜矣，上曰，唯，金鎮圭曰，金振汝等助役事定奪矣，不但冠服施彩時助役而已，面部設色時，亦當助役，此必預爲瞻望，然後可以詳知其設色之道矣，願命曰，畫士輩，預爲瞻望，然後面部肉色，可以詳知，即今使之入侍，何如，上曰，依爲之，願命曰，然則使之權着冠帶以入，何如，上曰，依爲之，願命曰，凡係大事，曾無大同之議矣，今番奉審諸臣，同聲一辭，但以爲極盡無欠，誠爲多幸，鎮圭曰，此絹本，或有未盡處，使秦再奚，更爲詳細看審何如，上曰，依爲之，鎮圭曰，又有稟定事矣，金身出草時，以大丹畫之乎，以紗袍畫之乎，上曰，龍袍不必以紗畫之畫以大丹，可也，願命曰，耳後少有高處，未知本來如此乎，或以痰而然乎，上曰，此是痰也，非本來所有，此則不必畫矣，願命曰，鬚髮不能詳瞻，使之進瞻，何如，上曰，依爲之，願命曰，所達畫士三人，今方來侍，當招入乎，上曰，招入可也，畫士張泰興，金振汝，張得萬，遂入侍，願命，願謂三人曰，汝等私相講論後，如有未盡處，各陳所見，可也，泰考曰，張泰興，金振汝，謂玉色有紅氣，而畫面缺白云，則秦再奚曰，玉色雖有時暫紅，而本白云矣，缺即今垂拱暫低，稍高然後，畫樣似勝云，缺日已晚矣，久御交缺高御交椅，便於瞻望，缺當出草矣，畫士出草後，願命曰，出草已畢，降御于平床，何如，上遂降御平床，上曰，曾瞻永禧殿缺則衣襖似寬矣，願命曰，衣襖太寬，則肥瘦難以的知矣，鎮圭曰，肥瘦在於面部，豈係衣襖之廣狹乎，願命曰，日已亭午，水刺進御何如，上曰，才已使之持來矣，願命曰，交椅下鋪席，畫以龍文席乎，上曰，以龍文席畫之，可也，內侍，進水刺床，鎮圭曰，交椅頭，可以少出矣，上曰，永禧殿交椅頭，亦少出矣，少出然後似好矣，上仍以兩手，舉帶兩邊曰，太祖大王御容，衣帶之間，境界分明，而第二室則狹袖矣，願命曰，異於常時狹袖乎，上以手指袖曰，如此如此矣，撤水刺床，願命曰，閱鎮遠畫像，使之持來，何如，上曰，唯上曰諸臣少退，可也，諸臣遂少退，良久還爲入侍，上曰，閱鎮遠畫像，出示可也，願命曰，曾前自內繪成之時，費了幾許日耶，上曰，不能分明記得，而累日後，始爲畢役矣，願命曰，今番亦當繪成二本，似難速完

矣，願命又曰，設彩時，當親臨乎，上曰，其時親臨矣，鎮圭曰，一本畢畫後，又始一本，則工役尤遲，且前頭日氣漸熱，上稍時，並始二本，何如，上曰，其言是矣，依爲之，行左承旨金德基曰，正本上稍吉日，自該曹更爲推擇，則貳六日前，更無吉日，故閉鎖遠，以貳六日上稍之意仰達，而時則姑無稟定之事，當初以貳六日卯時，爲擇矣，仍定以卯時乎，上曰，依爲之，出榻前定奪願命曰，都監堂上，例以左(戶)禮工首堂上啓下，而頃者禮曹判書金宇杭適有身病，故以閱鎖遠啓下矣，今則宇杭，病勢少歇，故鎖遠，以仍爲替行，爲不安之端，方欲陳疏辭免，而既已累日監董，且習古事，論畫之際，頗有所益，宇杭病雖少愈，而其眼病與脚病，決難入侍矣，曾前缺壇役事，時金圭鎮(鎮圭)亦以糸判，監役，長官有故之時，次官替行，既有前例，則不可以其一時之不安，許其辭免，鎖遠缺爲察任之意，下教何如，鎖遠曰，既有長官缺則長官病勢已差，可缺先此仰達矣，缺令次官代行者，前既有此例，禮判果是實病，則次官無不可代行之理，仍爲察任，可也，上曰，廿六日，尚隔數日，畫上將多暇隙，貳四日，果何如，而其間更無吉日云乎，鎖遠曰，貳四日，乃天盜日，而其間更無吉日云矣，鎮圭曰，臣曾瞻永禧殿影幀，則以泥金畫之，秦再矣，亦以爲泥金云矣，上曰，今亦以泥金畫之，可也，上曰胸排龍，以正面畫之，可也，鎮圭曰，雖畫以正面，而稍近後面，何如，上曰，稍爲推送後面則好矣，上曰，慶基殿御容原本，乃我國所畫，而永禧影子，則乃摸出者也，上曰，慶基殿奉安時，大臣舍壽恒，奉往而影子畫以便服云，潛源殿影子，服色則不知矣，鎮圭曰，潛源殿影子畫本，允精云矣，上曰，自前爲威鏡監司者，皆奉審矣，鎖遠曰，洪禹寧以爲，從紗外瞻望，而猶惶慄不敢仰瞻云矣，願命曰，太祖，大王御容，乃四本乎，上曰，當初則五本，而經亂後，只餘二本矣，鎮圭曰，世祖大王御容當初奉安于江都時，多有傷處，至今彩色熹微矣，上曰，唯，願命曰，其時山城危急，故相臣金尙憲，以親祭於影幀之意，陳達矣，上曰，唯，願命曰，經亂後，江都兒童，得其裂破者，作旅遊戲，自官家推見，則國家影幀也，遂狀聞于朝家，而既已裂破，故朝家命使燒火矣，上曰，唯願命曰，閱鎖遠畫像，出給乎，上曰，依爲之，草本畢畫後，願命曰，今日之後已畢，正本則當待吉日矣，上曰，唯，願命曰，臣等當退去矣，上曰，依爲之，(肅宗 39年 4月 22日 —Vol. 25, p. 876 上段 右— p. 877 上段 右)

○巳時，上御景賢堂，御容圖高都監引見時，都提調李願命，提調趙泰考，提調金鎮圭，提調閱鎖遠，都廳李晚堅，沈宅賢，監造官鄭維升，行左承旨金德基，假注書李廷傑，記事官徐命均，記事官朴師益入侍，李願命進伏曰，數日日氣涼冷，寢睡一向安穩否，上曰，安穩矣，願命曰，膈氣亦如何，上曰，頃日下教後，更無發作之候矣，願命曰，水刺之進，無加減之異乎，連進湯劑，今則何如，上曰，比之前日，頗有差效矣，願命曰，麻痺之症，以不爲頻發二字缺未知永快否，上曰，不<sub>レ</sub>至頻發，比前似輕矣，願命曰，御真正本，冠服已爲缺四五字今當設色畢，設色後當爲後禱，後禱後貼子缺五六字間間以水洒之，以爲消糊氣平帛勢之地，此非一二缺四五字匠人之言，則十許日，可以粧成云，後禱後禱澆置缺五六字上曰，背後淹置多，歷日子固好，以八箇日定限缺五六字曰，畢工日子，難可預度，臨時酌定，似宜矣，願命曰，影幀紅紗處題字，從容奉審，諸臣皆以爲，御筆數字缺上曰，非御筆也，前日朴泰尙爲禮判時，以爲影幀宜有標題數字缺朝臣中善書者書之，自此第一室，第二室，第三室，皆有<sub>レ</sub>標題矣，上又曰，其時任相元，似寫標題，而今已多年，未能的記矣，願命曰，宜有標題之說，誠是矣，頃日臣亦仰達，今此正本，亦宜有標題，而以御筆親題乎，右邊下稍，亦當書年月，而既不可以單書，又不可以彼國年號書之，近來私家記年月，多以崇禎後紀元書之，此亦依此書之則何如，上曰，朝臣中擇善書者書之，可也，而以崇禎紀元後幾年某月題錄，則似爲分明，宜以此書之矣，願命曰，書月不書日乎，上曰，然，願命曰，聖上已膺徽號，今此正本，以某王御眞，書其標題，恐爲得宜矣，上曰，依爲之，鎖遠曰正本畢後，標題<sub>レ</sub>即令書寫乎，上曰，預寫無妨矣，願命曰，都監訖工之後，但以草記，告成而退，則事泛忽，都監堂上，進詣此堂，進入大內儀節，令該曹磨鍊啓下，何如，上曰，依爲之，鎖遠曰，正本內入時，不可擇日，敢達，上曰，依爲之，願命曰，江都奉往奉安時，宜有儀節，亦令禮曹，兵曹，考戊辰慶基殿踏錄，添刪磨鍊啓下，以爲先錄儀軌之地，何如，上曰，依爲之，金鎮圭曰，日色向晏，令畫工始役，何如，上曰，依爲之，鎮圭曰，所畫換服一本，當待御覽後始工乎，上曰已啓所寫紅袂，看過矣鎖遠曰，既已磨覽，則其無所欠乎，上曰，無一可欠，卿等果善爲圖寫矣，目鎖圭曰日色向晏，至圖畫矣，不出舉條，願命曰，缺四五字前後射隊之數，頃日原任大臣，既以從簡之意仰達矣，考見戊辰踏錄，則其時，以四哨定數啓下，今當磨鍊之時，其將以缺四五字上曰，半減定數，宜矣，鎖遠曰，江都奉安，頃以益秋之意仰達矣，九十月間，當以何時定之乎，鎮圭曰，待秋之意，既慮民弊，則似在秋成之後矣，上曰，以九月內擇日，可也，願命曰，此草本眼部缺五六字以水加之則發彩云，以此施之乎，鎮圭曰，眼部瞳子缺五六字白之界，加百草霜水則似好云，審覽後，如以爲善缺三四字上曰，唯，所改之本頗勝，以此用之可也，願命曰，設畫處缺數字一員遞進看檢，爲宜矣，上曰，唯，於是，鎮圭趨伏于畫幀之左，監造官鄭維升，趨伏于畫幀之右，鎮圭曰，以毛綿紙，貼覆幀

邊，似好矣，上曰，依爲之，鎮圭曰，今日親臨之意，欲令畫工，頻頻仰瞻而圖寫之意也，今當設色，宣許瞻望矣，上曰，依爲之，自願命曰此草本以下至此，不出舉條中，願命曰，考見戊辰年膳錄，則影慎奉行時，百官迎送于江頭，今此江都奉往之路，當由孔岩津，而三十里之也，百官人馬有弊，且郊外舉動時，有闕外祇送之規，今亦令百官祇送于闕外，何如，上曰，依爲之，願命曰，若行江頭祇送，則各司各一員當往，而今以闕外祇送定奪，令百官齊赴，似合事體矣，上曰，然矣，願命曰，正本內入時，無輦輿奉安之節，當以櫃子傳於中使，則中使納于大內乎，上曰，依爲之，出舉條上曰，秦再奚，頃言設色時，有所致意處云矣，今果何如，其問之，鎮圭承命問之，再奚退伏而對曰，觀胥下有黑氣處，欲因以爲肉色故也，鎮圭以其言奏之，上曰，如是則好矣，鎮圭曰，頃於宗臣等奉審之時，儒川君以爲，眼部白睛，少加肉色，爲宣云，故臣與畫工議之，則再奚言，缺三四字當不必更加云，不審睿覽，亦如此否乎，上曰，睛不過白，不必更加肉色矣，願命曰，請上平坐以示，何如，上遂就龍床上平坐，願命曰，標題當書於正本左邊，缺三四字並書之乎，上曰，然矣，自上曰秦再奚頃言至此，上曰，然矣，不出舉條，願命曰，冠服之節，亦甚重大，御冠服色缺五六字摸出，大抵禮典圖式中，大帶之制，表白裡紅，缺八九字尙方所進大帶，則以紅爲表，以白爲裡，六七字缺帶前，聯以綠段，如大帶者下垂，過於蔽膝，此必缺五六字以致如此，殊非本制也，宣令禮官，更考圖式稟定，似好矣，上曰，依爲之，鎮圭曰，大帶以圖式見之，橫而有垂，又有缺四字結之，而慮其不固，又以條加結也，今大帶之有綠段貼造二字缺大帶所結之不固，一時取便，而遂以線段爲結，不用大帶，缺四字禮制，且綬當繫於大帶下，而今貼付大帶上，蔽膝缺五六字宜有釐正之道，並令禮官，考据古制，以爲稟定之地，宣矣，上曰，中間差訛，以致如此，其令禮官，並爲釐正，可也，願命曰，今此遠遊冠，與皮弁之制相襲，相襲此亦爲欠矣，上曰，果似皮弁之制矣，願命曰，遠遊冠本制，纓珠不密，兩傍俱有螺文，而尙方所進之冠，則纓絡稠密，而兩傍無螺文，似與古制不侔，今此釐正之舉，不但考据於大明制度而已，凡歷代制度，遍加參考，期得其正制，斯可矣，上曰，依爲之，自願命曰冠服之節至此，出舉條，願命曰，中國冠服之制，磨滅已盡，如有王者作，則必來取法於我東，政宣明考正制，以爲文獻之徵矣，鎮圭曰，御冠服，已依尙衣所進之制模寫，而伏見御圭，亦似有欠，凡公侯伯子男之圭，各有等品定制，而今此御圭，甚是肉薄，長廣不叶，且圭面，宜畫日月山川，而此則以龍形畫之，似非古制矣，上曰，誠如卿言矣，庚辰，辛巳年間，從燕京購來，則稱以明朝古秦王之所執者云，故貴其舊物，存以備用，而蓋其品式長短，與古制有異矣，願命曰，圭制厚廣，皆有尺寸，銳頭合跗，本意較重，而今此二字缺所進，品薄而似狹，恐不叶制矣，上曰，此似古物，而圭制元有寸數矣，願命曰，凡禮器，必用國家三字缺我國量尺無精規，昔在世宗朝，唐人陳理明昇出來後，考見其家廟神主，式缺四五字正制，以此裁圭，則似不差訛，而良玉難得，是可慮也，上曰，自此中造見樣，持往求玉，則庶可沾得其可用缺四五字正品矣，鎮遠曰，臣嘗奉使赴京，則燕中無良玉，缺六七字願命曰，臣亦頃年，往入燕都，彼中冠服，元無良玉，缺四五字故甚罕也（肅宗 39年 5月 5日 — Vol. 25, p. 885下段 右 — p. 886 下段 左）

○李願命曰，考見戊辰年膳錄，則缺八九字上輦之時，以他小輿換奉矣，今此江都之行，所當缺六七字未新造，阨處移奉，必致遲重，事且有異於前，凡缺六七字狹處，則拔橫輦出入，似爲順便，未知如何，上曰，如是則好矣，趙泰考曰，然則別無換安他輿之舉矣，缺四五字奉往時，自大內橫安於龍亭上，以就輦輿之內乎，泰考曰，崇政殿前，使執事官奉出，以安於輦輿內乎，閔鎮遠曰，缺四五字奉櫃子，出崇政殿階上，自陞上，或以彩輿，或以龍亭，奉出三字缺門外，以安於輦輿內則似好矣，上曰，此事何如，願命曰，或以彩輿，或以龍亭，橫安御容，出崇政門外後，奉就輦輿上則似好矣，且在路遠行，則不得不縱安輿內，而初頭奉出時，橫安爲宜矣，金德基曰，此異於常時舉動，內官奉櫃子，出崇政殿，而所備輦輿，預待於崇政殿前階，直爲奉安，似無弊矣，上曰，常時舉動，則輦輿待候於崇政門外，而此則與常時，舉動有異，承旨之言，是矣，依此行之，可也，願命曰，今番奉往時，如啓動駕，進發升降輿之類，並不當舉行，節目磨鍊時，亦當如此矣，上曰，依爲之，願命曰，茲事重大，圖寫畢工後，群臣皆有瞻拜之願矣，臨時更令諸大臣，來會入瞻乎，上曰，頃日既令入瞻，今亦依此行之，可也，德基曰，臣子愛戴之心，孰不欲一望圖寫之儀乎，若令二品以上，一同來會則好矣，上曰，頃日抄出曾經玉堂人員，使之奉審矣，今則三司之人，一併同參，可也，鎮圭曰，此與頃日草本奉審，事體殊別，群臣瞻拜時，當有禮節矣，上曰，然，鎮遠曰，諸臣皆行四拜禮于庭下，然後入，瞻，似宜矣，泰考曰，遠遊冠，絳紗袍，即法服臨朝之儀，諸臣恐不可以常服，入瞻缺數字其日，諸臣皆以黑團領入參則似宜矣，上曰，依爲之，鎮遠曰，大臣諸臣入瞻之禮，以內入前一日定行乎，上曰，依爲之，出舉條（肅宗 39年 5月 5日 — Vol. 5, p. 86 下段 左 — p. 887 上段 左）

○上曰，此外冠服諸具如有與禮文差違處，則一體稟處釐正，可也，豫欲一從明制焉，鎮遠曰，五禮儀大明會典，如有差違處，則一從大明會典乎，上曰，然矣，上曰，王妃覆衣，亦有比禮文差訛者，大明會典，則給以翟雞，而今則

以翟雉繪之，首飾亦非大明冠制矣，鎮遠曰，小臣未嘗奉玩翟衣，不知所以仰對矣，上曰，此亦一體釐正，可也，鎮遠曰本曹堂上，與尙衣院提調，齊會於尙衣院，奉審御用各項冠服，一一憑考禮書，其中缺二字稟旨釐正，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肅宗 39年 5月 5日 Vol. 25, p. 888 上段 右）

○金鎮圭曰，面部上氣，在於那時缺四字當從黃白色設彩，上氣時多，則宜以紅潤爲色矣，上曰，缺三四字從平常時設色，宜矣，（肅宗 39年 5月 5日 Vol. 25, p. 888 上段 右）

○上曰，兵判，頃於下詢草本之時，謂以面部黑點，尙過云乎，願命曰，然，上曰，其言是矣，淡施彩可也，願命曰，右頰上黑點，未知瘡痕乎，癩乎，上曰，此非瘡痕也，畫水刺進御後，上曰，諸臣少退，遂皆退出閤門外，俄而復入侍願命進曰，水刺進御後，別無隔閡泥滯之候乎，上曰，下至是矣，畫工趨入，復始設色，上又平坐龍床上，鎮圭，維升進於畫幀南隅，願命曰，此本，明日不過午前可畢，今姑停止，何如，上曰，依爲之，願命曰，戊辰影幀之工，五十日而畢，今此御眞，一月而訖工，可謂速成矣，鎮圭曰，鬚髯有最長者乎，上以手楷鬚曰，一筒特長而已，上仍御椅子上，畫工等，奉正本，立安西壁，願命曰，凡畫圖，掛則殊親，未知此本，較之此本何如，上覽之良久曰，此草本似勝，諸臣所見亦何如，願命曰，諸臣見之，皆以爲勝於草本矣，鎮圭曰，此草本，設彩分明，鬚髯稱當，缺四五字鎮遠曰，缺四五字今此正本，眼彩倍勝缺數字草本一件，既已缺四五字親臨次本，是可模寫，未知其已親臨否，上曰，問于畫工，願命，招畫工以下缺儘餘（肅宗 39年 5月 5日 Vol. 25, p. 888 下段 右一左）

○御容都監都提調景賢堂入侍時，都提調李頤命所啓，槐院分館，遷就三年，朝家累加責罰，申飭至今，尙不奉行，此實前所未有之事，數日前，臣等更爲嚴飭，則本院官員，始爲齊會圈點後，旋又罷坐云，事之可駭，莫此爲甚，當該上博士掌務官，並拿推，更令從速分館，何如，上曰，此事無可成之期，極爲可駭，依所達爲之，可也，○禮曹啓曰，畫員秦再奚，以圖寫御眞之功勞，特陞堂上，於渠則榮幸極矣，第有拘碍難便之端，即今畫員，能解畫格者絕少，如秦再奚者，亦不易得，而圖畫署畫員，加資後不得仍存，古例然矣，在前尹商翊陞堂上後，因渠自願，本曹啓稟仍屬，以終其身矣，今此案再奚，依尹商翊例，欲爲仍置本署，而渠以爲，畫員雖甚微末，既陞堂上之後，爲食斗料，破格仍存，與生徒一體取才，事體不當，亦甚疲軟云，而願離本局，渠之情願如此，有難強迫，所當任其所爲，而然其畫才可惜，失其付祿之路，亦涉可矜矣，曾於壬申年間，畫師許義順，以影幀圖寫之功，東班職除授，仕滿遞職後，本曹判書，陳達於榻前，加設可果祿一遞兒，使許義順，復屬付祿，厥後此一遞兒，則永爲曾經東班職者應付之稟事，定奪矣，許義順，上年冬，身死，此遞兒，今成空窠，秦再奚，仍屬本署，許付許義順祿窠，以爲勸獎畫工之地，何如，傳曰，允，戶曹贈錄 ○巳時，上御景賢堂，御容圖寫都監都提調李頤命，提調趙泰耆，金鎮圭，副提調閔鎮遠，都廳李晚堅，沈宅賢，郎廳鄭維升，行左承旨金德基，假注書李挺淵，記事官徐命均，朴師益入侍，李頤命進伏曰，日氣陰濕，連日不和，寢睡何如，上曰，安穩矣，願命又曰，水刺有勝之之教，夜來聖體，有所加勝乎，上曰，別無加勝之事，而與昨一樣矣，願命又爲進伏曰，遠遊冠缺二三字朝，設彩於面部，而鬚髮眼睛上，未知點綴，畫工使之入來，何如，上曰，依爲之，畫員秦再奚入來，將始繪事，金鎮圭曰，畫工秦再奚，欲瞻望天顏矣，上曰，唯，願命曰，御容後稍後，晒乾缺數字爲限矣，內入之日，二十一日爲吉云，定於二十一日，內入則缺三四字後稍後，張壁洩置則好矣，上曰，二十一日前，無吉日乎，願命曰，十五爲日吉云，而後稍晒乾，似未及矣，上曰，十五日則缺四五字願命曰，後稍後過了多日，爲益好矣，上曰，然則依爲之，願命曰，正本上標題之事，昨已定奪，而考見永禧殿缺四五字謄錄，則擇日書之，今番亦當依此擇日以書，而日晷甚長，缺四五字似不必別擇他日矣，上曰，依爲之，出舉條願命曰，缺四五字年月，亦當書識，故以標題則書之上旁，年月則書之缺四五字稟定矣，或云，年月，雙行書之於標題下爲宜云，未知何以書之乎，上曰，雙行以書，似無妨矣，出舉條鎮遠曰，永禧殿影幀標題缺三字一籤粘付，而今則當於絹上直書之乎，趙泰耆曰，永禧殿缺三字粘之，而覆以紅紗，今亦依此爲之，似宜矣，鎮圭曰，永禧殿則以追書，故別寫以粘，今番則直寫於絹上，似當矣，上曰，粘則易落，直寫絹上，似宜矣，願命曰，今番則異於永禧殿追題之時，似不必別寫以粘矣，上曰，此與追書有異，臨絹直寫，可也，出舉條鎮遠曰，大臣二品以上，入瞻御容，初似內入前一日定奪矣，標題書寫之後，諸臣入瞻，似合於禮，其日標題書寫後，諸臣行瞻拜禮，待其罷退而內入，何如，日晷甚長，必無窘迫之患矣，上曰，依爲之，出舉條金德基曰，宗臣文武二品以上及曾經玉堂人員，前已入審草本矣，今番正本，則以兩司同入之意已，既已定奪，而外議以爲，群下舉切一瞻之願，百官雖難盡入，曾經兩司之方帶軍職者，則似當並爲進參云，故敢達，上曰，此言何爲，願命曰，曾經與時任何異，一時同入，雖似紛擾，曾經兩司，方帶軍職者，似不至多，使之並爲入瞻，亦無妨矣，鎮遠曰，曾經兩司之人，在外者多，在京者少，以不至紛擾矣，上曰，使之同爲入參，可也，出舉條願命曰，御容初出草本時備忘中，以影子爲教，此乃上所自稱，而非在下者之所敢稱號也，影幀之幀，考見字書，則其音諍，其義則開張繪畫云矣，畫機



之稱以諍機，似是慎矣，然則乃張機之謬也，非粧成簇子後可稱，而自前容之於辟容缺三字猝變，既是先朝辟容之稱號則亦非今日之所可稱也，缺數字御容則殊涉樸直，凡諸傳神，皆稱寫真，則稱以御真缺三四字群下及文書，以御真稱之未知何如，鎮圭曰，真字缺四字今稱以御真固可，而第面目似生，宋仁宗時，歐陽脩缺四字御容，其割中，直以容字，稱畫像，此雖因古人文字之節缺四五字]如此，今以御容稱之，亦似無妨矣，上曰，宋時缺六七字御容之文矣，向日影子之教，蓋是自我所稱缺七八字永禧殿，既云真殿，則御真之稱，似好矣，缺七八字雖瞻望天顏，不敢向前頻頻仰瞻，故難得分明，缺四五字上曰，近前諦瞻而畫之諸臣及畫工，進前瞻望，願命曰，俗稱眼如點添，大凡人之眼睛，或有黑者，或有黃者缺，缺三字眼睛上，似微有黃色矣，上曰，然矣，微有黃色矣，願命曰，然，上曰，皇明時，則高皇，文皇，肅宗，三帝，寫置真像，缺四字文皇帝畫像，寫以側面矣，肅宗皇帝畫像，寫以正面矣，鎮遠曰，缺四字幾如正面矣，上曰，潛谷畫像，或稱孟英(永)光所寫云，然否，願命曰，其家與臣連姻，故臣亦嘗見其畫像，非孟英(永)光所寫也，有二本焉，其大本，即丙子朝天時所畫，未知誰筆，而其小像一本，即庚寅年奉使清國時所畫云，而見其綃面圖書，則其名焦炳，肉色毛髮，宛然如真，誠畫厨之佳品，未知曾經睿覽乎，上曰，豫曾取覽小像，則東陽尉作贊矣，願命曰，小像，繪以畫龍冠鶴髦衣，(肅宗39年 5月 5日 Vol. 25, p. 888 下段右)

○上曰，所達之言誠是，另加留意焉，遠遊冠本施彩缺六七字本，奉立於堂中，鎮圭曰，面部采色，只取通看時缺四五字為惹微，昨日翼善冠本，施采似淡，故此本稍為缺五六字復經睿覽後，可以稟定矣，上曰，遠望惹微缺四五]字此本施采稍增，頓覺煥然，翼善冠本，亦依此設采，可也，上曰，此本比翼善冠本，似有所勝，卿等之意何如，鎮圭曰，翼善冠本，別無未盡處，而第其設采頗淡，此可欠，今當更加采色矣，上曰，依為之，出油紙草本，掛諸壁上，願命曰，正本二本，既幸善成，初出小本，雖未具儀，而亦極肖似，且自上既已出示群下，群下亦皆禮瞻，而莫不稱以善本矣，直為洗草，事甚未安，今宜粧成小簇，奉藏櫃子而內入，以俟日後太白，五臺中深僻處璿錄奉安之行，同為奉安于閣上，以為永久奉藏，似合得宜，事出迷見，未知如何，下詢于諸臣，何如，上曰，此言何如，奉者曰，初本善成，諸臣奉審時，皆曰克肖，則洗草似為未安，粧成小簇，同奉於長寧殿，亦無妨耶，鎮圭曰，此本，諸臣既奉審，而以為有似，故遂為定本，模上正本，則今之洗草，誠極未安，且別為久遠之計，則奉安璿錄閣中，亦似便當矣，願命曰，奉安璿閣之後，每當璿錄曝曬之時，同為奉審曝曬，則亦無滄傷之慮矣，鎮遠曰，都監當造成櫃子以入，而璿錄奉往之時，直自大內奉出以往則亦可以省弊矣，上曰，大臣及諸臣之意如此，依所達為之，可也，出舉條遠遊冠本面部紅纓畫出後，諸臣向前奉覽，皆曰不如無之，而亦不至有妨矣，上曰，不至於有妨於所見矣，願命曰，小本藏置事，既已定奪矣，櫃子則當令都監，入，其他物件則勿為新造，內藏御容，前本洗草之後，移用缺二字未知如何，上曰，依為之，出舉條願命曰小本紙面窄狹，粧績之後，缺四五字似難用之矣，上曰，勿用之可也，鎮圭曰，小本既不洗草，缺三四字奉安于璿閣，則標題亦不可無矣，願命曰，然則標題缺四五字所書而書之乎，鎮圭曰，此與正本有異，似當書以草本，缺數字願命曰，然則當以初本書之矣，上曰，唯，出舉條願命曰，缺數字玉牒御諱，其貴重不下於御容，同為奉藏，似無所妨，缺數字以事體之重，別構殿閣，奉出他所，則殊非今日缺五六字自上若以御筆，親識此意於小本之上，以示永久，未知何如，上曰，所達誠然，依為之，出舉條願命曰，圖繪畢後，臣等罷退，自上缺二字使匠手，始為後禱，何如，鎮圭曰，今日則不必為之，自明日為始，似好矣，上曰，明日後禱可也，願命曰，後禱後，臣等別無大段看檢之事，其間則令郎廳直宿，臣等趁班軸時，可以仕進矣，上曰，唯，畫工畢役二本，復經睿覽後，奉立於堂西壁間，鎮圭曰，二本無差殊，而遠遊冠，風采似勝矣，上曰，二本無差殊乎，願命曰，似無差殊處矣，鎮遠曰，遠遊冠本，面部似長，而更為審審，則以冠樣長故也，二本既成，睿覽以為如何，願命曰，自上雖未得親覽面部，平日臨鏡，必有照見而知之矣，上曰，今則別無未盡處矣，鎮遠曰，小臣有區區所懷，敢此仰達，我朝列聖影幀，有三位焉，元宗大王御容，潛邸時所寫，而惟太祖，世祖兩廟御容，圖書於臨御之日，其後列聖，未聞有真像之傳後，而逮至聖明，始有之矣，但乙亥年則直自禁中圖寫，而外朝無甚關涉，故群下奉瞻，亦未得諦詳矣，今番則特設都監，重其事體，提舉諸臣，遂日會集，屢度奉審，而御容二本，得幸善成，有勝於乙亥前本，千萬代子孫臣庶於戲不忘之思，實在於斯矣，第伏想太祖，世祖兩廟之盛德弘功，鬼運千古，至今臣民，瞻望辟容之際，益激忠孝之誠，豈不由於追慕功德而然哉，自上勉修聖德，而比隆於兩祖休烈，則永世臣民之不謬，亦猶今之追慕兩祖矣，缺四五字今日者也，鎮遠曰，君臣之間，情意相通，則聚會精神，缺三四字自上克盡交字之誠，以思共濟道，則鎮圭所達，比隆於兩祖者無難矣，願命曰，兩臣所達之言，誠極切至，自上宜體念也，上曰，陳戒之言懇切，當各別體念矣，願命曰，以前本缺五六字自上決意改之，而今本善成，凡於事為之間，缺七八字臣民受福，亦祈天永命之本也，鎮圭曰，今番諸臣缺七八字有所論列矣，自上幸用臣言，親臨圖繪之所，缺六七字臣之立朝，幾三十年，

承光寵，屢陪前用席，而曾缺四五字從容之時，蓋其上下情志之交通，故御容圖寫，缺二三字幸得善哉，凡事皆如此，則有何所難，鎮遠之言，誠然矣，上曰，唯，遂罷出，（肅宗 39年 5月 6日—Vol. 25, p. 889 下段 左—p. 892 下段 右）

○俞命雄，以御容圖寫都監郎廳，以都提調意啓曰，御眞標題年月日書式，及書寫官啓下事，榻前定奪矣，書寫官實預差望，別單書入之意啟啓，傳曰，知道，（肅宗 39年 5月 7日 Vol. 25, p.893 上段 左）

○傳于洪馬寧曰，今番圖寫影子，奉往長寧殿後，奉審一節，缺四五字朔爲之事，分付本府，（肅宗39年 5月 7日 Vol. 25, p.893 上段 左）

○禮曹御眞標題書寫及內入吉日，今日官推擇，則標題書寫，今月二十一日卯時，內入，同日午時爲吉云，以此日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肅宗 39年 5月 8日 Vol. 25, p.894 下段 左）

○答正言魚有龜疏曰，看疏具悉，有懷疏陳，固無不可，而第圖像事，搗謙二字，似不着題矣，既已出示草本，則都監之役，不過事體間事耳，本非張大而然也，正本異於草本，俾去瞻拜之節云者，亦所未曉，藏置櫝閣，自有曲折，今茲所論，未免失其本旨也，爾其勿辭察職（肅宗 39年 5月 12日 Vol.25, p.900 下段 左）

○正言魚有龜啓曰，如臣無似，猥受殿下耳目之寄，泯默虛帶，已浹一月，尋常愧懼，若負譴何，而臣雖愚魯，亦嘗聞古人無隱之義，敢陳一疏，略效區區憂愛之忱矣，言辭拙訥，誠意淺薄，未概聖心，反承未安之批，臣誠惶悚縮，不知置身之所也，噫，臣之本意，非直以圖寫之事，謂有歎於謙德，殿下既以冲挹之心，恒自勉勵，則雖於一事一令之間，固宜持循此心，罔或少忽，凡係張大之舉，務加裁損，故臣於疏中，略及此意，冀有輔於聖德之萬一，而辭不達意，致勤誨責，尤不勝感嘆之至，且抄啓諸臣，奉審草本，意固有在，而正本完畢之後，又使大小臣僚，齊會並進，其服色儀節，殆同朝賀之禮，未免爲夸大之歸，況寶座天臨，威顏密邇，而咫尺清光之下，乃友瞻拜於傳神，誠有所未安，臣之請去其一節，蓋以此也，聖批中，雖以未曉爲教，而臣之愚見，終未知其事體之得當也，至於藏置櫝閣一節，其稟定委折，臣嘗略聞之矣，洗去草本，果爲未安，則內入之後，亦豈無自上處分之道，而必欲秘藏於金匱石室之間，不幾近於誇耀永世之意乎，臣之此言，竄出於隨事箴觀之悃，而不惟不賜開納，至下嚴教，此莫非臣之平日言行，不能見信於君父之致，自顧慚慙，尚何言哉，適於此際，嚴召狎臨，休迫於義，雖不得不勉勉承，而更何顏面晏然仍冒於言貴之地乎，請命屢斥臣職，答曰，勿辭，退待物論，（肅宗 39年 5月12日 Vol.25, p.901上段 右—左）

○應教李晚堅疏曰，伏以臣於直中，得伏見正言魚有龜疏本，則盛論圖寫御容事，至以設置都監，張大其事爲言，臣於此，竊不勝瞿然之至，今此御容圖寫之命，寔遵列聖朝已行之事，臣未見其有損於聖德，而茲事所係，既重且大，若其節目間事，不過一循舊例而已，夫安有一毫彷彿於侈大之舉耶，然而信如其言，則臣忝在論思之列，既不能一言匡正，又從而受命董事，若論其罪，臣實爲首，其何敢晏然於榮次乎，茲不得不冒控危懇，伏乞聖慈，函命鑄臣職名，以謝人言，以安微分，千萬幸甚，臣無任屏營祈懇之至，謹昧死以聞，批答在上，○左議政李頤命劄曰，伏以臣，即伏見正言魚有龜疏本，視然慚慙，悚然悸恐，其所以仰戒於聖明者，莫非臣缺三四字曾任江都，數瞻長寧殿所奉御眞冠服，非禮式繪寫缺二字深知其未安者，今已十七八年矣，頃日入對，適見度支之臣，稟以永禧殿影幀修改事，臣因此起想，倉卒陳稟，愚見以爲，聖朝初無此事則已，既有之矣，當求其惟肖，先儒論人家影子，猶以一毛一髮不似，爲疑，況於天日之表乎，又況臣子之心乎，既以爲未安，則其何可以仍舊爲請乎，自內即出草本，非臣之所嘗請，而既又出示朝臣，則其將曰，此虛文也，何必濫改乎，既當改矣，又何可請其自內繪成，復如前日乎，都監之請設，事體之所不可已也，然大禮甫訖，都監又設，聽聞所及，疑若多事，雖臣心，豈不無顧慮，而事之不可已者，在所舉行，故不敢復言，受命而不辭，此豈欲其張大浮誇，不覺深累於聖德者耶，夫繪像之事，前代帝王，亦多有之，蓋將爲子孫瞻依之地，豈皆有浮誇之意也，然告儒有言，人於外物，事事要好，只有自家一箇心與身，却不要好，此不但乘戒於人，凡臣子之忠愛於其君者，當宜以此陳勉，今日聖學，雖甚緝熙，虛明之地，容有未盡瑩澈，直若止水明鏡者，而臣未嘗以澄清本源之說，勸懇於宸覽，至若御眞，事體雖重，實在聖躬，猶是外物，而臣則爲殿下要好，是乃不識本末者也，言之者，宜識以虛文，此實臣之罪也，且群下之更願一瞻，以慶其成情理之固然，殿下以體下之仁，特許再示，何害於理，而謂之誇示而觀光則過矣，禮官之稟禮節也，臣亦不以爲過者，古禮路馬亦式，凡屬乎上者，當敬，況日月之光乎，今例，文武科殿試，虛座亦拜，此有何嫌乎，至於初本之藏名山，即臣之請也，此本，群下之莫不稱善者，因此作正本，則其真可寶惜，與正本何異，將與他草木，同歸洗葉，實涉未安，且以前事觀之，太祖大王粹容五本，而今保其二，蓋由於天下事變之無窮耳，今欲秘藏而壽傳者，豈是意外，亦豈出於耀後之計哉臣又請以御筆，親題小識，以示異日，不必別爲立殿之意矣，其後御筆小識，以別紙下矣，亦欲更稟移模於絹，尚未粧褙矣，亦伏聞缺二字數人，以爲前例所無，事體苟簡，曝曬難

矣，缺四五字弊亦多端云，不但臺臣內外名實之言而已，缺四五字未必專出於歸咎臣身，正爲國家惜事體也，伏願深加缺二字別賜指揮也，臣以蒙識茂學，叨冒重任，隨事生疣，固無足恠，凡臣有過，人莫不知，亦非臣之不幸也，唯其張大浮誇，務以虛文，導聖上，則臣雖萬死，何足以贖此罪也，臺臣之慨然論事，有足多者，臣不敢少恨，伏乞聖明，函命鑄削臣職名，以懲其(?)以謝人言，不勝幸甚，取進止，批答在上，爐餘追贖(肅宗 39年 5月 12日 Vol. 25, p. 903 上段 右~下段 左)

○判府事李希劄子，大槩臣甚甚，不得入瞻御真，惶恐待罪，附申妄說，以備財察事入啓，(肅宗 39年 5月 21日 Vol. 25, p. 915 上段 左)

○以備忘記傳于洪禹寧曰，御容圖寫都監都提調李頤命，鞍具馬一匹賜給，提調判書金鎮圭，熟馬一匹面給，提調判書趙泰耆參判閔鎮遠，各熟馬一匹賜給，提調判書金宇杭，勿論，都廳應教李晚堅，副護軍沈宅賢，並加資郎廳正郎申伯周，佐郎趙斗彬，監造官主簿鄭維升，並陞叙，別工作監役官李晉命，畫絹織造及輦輿監造官直長尹仁教並六品轉，標題書寫判書金鎮圭，半熟馬一匹賜給，絡纓織造時監造官僉正尹明運，上弦弓一張賜給，主管畫師前司果秦再雲，加資，同秦畫士閔良金振汝，教鍊官張泰興，前司果張得萬，並東班職除授，隨從畫士前司果秦再起，許倣，各上弦弓一張賜給，員役工匠下人等，令該曹，米布分等磨鍊題給，○又以備忘記傳于洪禹寧曰，御容圖寫時次知內官曹漢卿，熟馬一匹，從事內官尹商徵，崔宇柱，各半熟馬一匹賜給，傳奉差備內官趙重壁，朴重昌，朴行重，李世禧，吳泰獻，各上弦弓一張賜給，別監等，令該曹米布分等磨鍊題給，○洪禹寧，以御容圖寫都監郎廳，以都提調意啓曰，都監書啓，依聖教修正以入，而取考戊辰謄錄，則輦輿造成尙方官吏，備忘記中，有論賞之命，而都監書啓，無見出處，似是謄錄落漏之致矣，今則尙方造輦官吏，別單書入，織絹之役，雖非多日，畫絹，比他物件較重，絡纓織造之役，亦非輕歇，恐不可不論，故織絹及絡纓織造官吏工匠，並爲書入之意敢啓，傳曰知道，(肅宗 39年 5月 22日 Vol. 25, p. 91 上段 右~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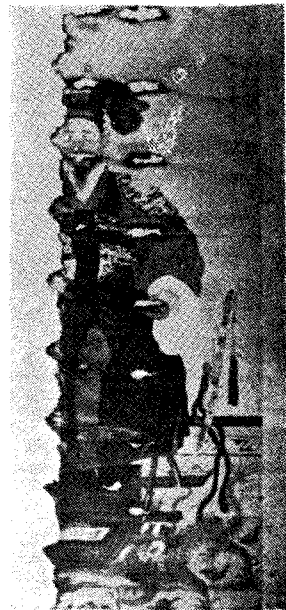
傳端宗肖像



太祖御眞



英祖御眞



哲宗御眞